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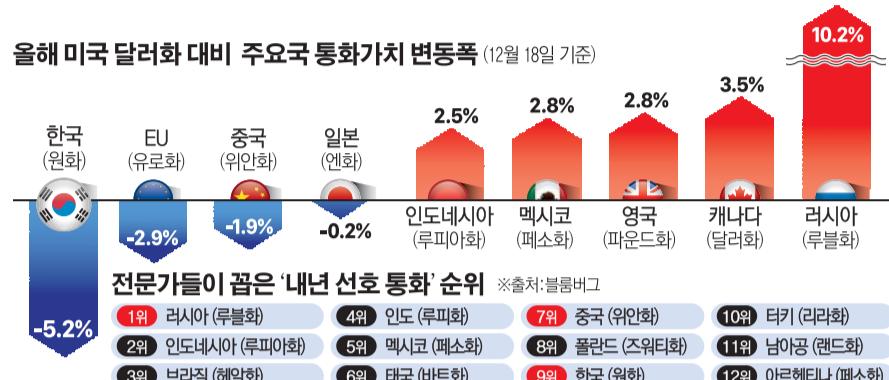
이주열 “저물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한계” 4



정선미 대표 “K메디컬 열풍 일으킬 것” 21

러 루블화 10% 상승, 加·英도 ↑…원화는 -5.2%

올해 미국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 변동폭 (12월 18일 기준)



현대기아차, VR 설계품질 검증

현대기아차가 17일 자동차의 품질을 높이면서 개발 속도와 수익성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연구원들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서 설계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현대차, 내년 '레벨3 자율주행' 대형트럭 상용화

정부·업계 미래차 간담회…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현대자동차가 대형 상용차를 앞세워 내년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18일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넘어 레벨3 시스템으로 첫선을 보이는 차는 대형 트럭이 될 것"이라며 "통신기술과 정밀지도 구축 등이 뒷받침 되면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정 구간에서 안정적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레벨3단계는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차량시스템이 알아서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수준을 의미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미래차 업계는 서울

양재동 더 케이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레벨5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과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은 기술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비롯해 현대차, SK텔레콤, 삼성전자는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미래차 업계가 대거 참석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른바 MECA(모빌리티·전동화·커넥티비티·자율주행)로 요약되는 미래차 전략의 실현을 본격화한다.

현대차의 레벨3 수준의 대형 트럭도 정부 정책에 맞춰 나온다. 2024년에는 시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레벨4 수준의 자율 차를 '운송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역시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도록 통신 및 지도·교통 시스템 등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안전기준도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1년에는 법으로 제정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차 개발을 목표로 단계적 상용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덩치 키우는 韓·中·日 조선·철강 '패권전쟁'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진행 중

중국, 세계 최대 조선그룹 출범

日 상위권 조선사 규모 확대 시활

중국 철강사 통합도 적극 추진

한때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역시 상위권의 조선사들을 합치며 규모 확대에 시활을 걸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은 일본 조선업 건조량 기준 4위인 미쓰비시조선이 나가사키현 나가사카시에 위치한 주력 공장(고야기)을 3위 오시마조선소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1위인 이마바리조선이 2위 JMU(재팬마린유나이티드)의 지분(30% 미만)을 취득하며 상선 부문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여전히 중소형 조선업체 10여 개가 난립하고 있어 이를 기업 중심으로 추가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는 건조량 기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과정을 밟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

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따냈다. 최대 난관인 EU의 분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현지시간) 1단계(일반심사)를 마치고 2단계(심층심사)로 돌입한 상태다. 기한은 내년 5월 7일까지다.

철강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중심으로 덩치 키우기가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집중도 제고와 저효율 설비 감축을 한꺼번에 달성하기 위해 '철강사 간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8000만 톤 이상 철강사 3~4개, 4000만 톤 이상 철강사 6~8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에는 국영 국유 철강사 60곳, 중점 민영 철강사 160곳이 있으며 이들이 전체 조강 생산의 80%, 그 외 소형 민영사가 20%를 차지한다. ▶9면에 계속 하유미 기자 jscs508@

아시아나 놓친 제주항공, 이스타 품는다

연내 SPA 체결 등 경영권 인수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제주항공에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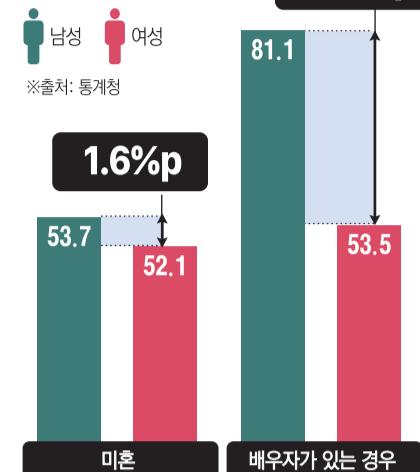
양해각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연내 SPA를 체결할 계획이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이며 지분비율

은 51.17%다.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 원이며,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으로 11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해 온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이스타항공에 먼저 매각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은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항공 업계에서는 LCC 만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통합될 경우, 중복 노선 정리 등의 효율적 경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육아에 발목 잡힌 여성... 결혼 후 고용률 차 26%p 벌어져

남녀 고용률 차이
(단위 : %, 2018년 기준)



통계청 '일·가정 양립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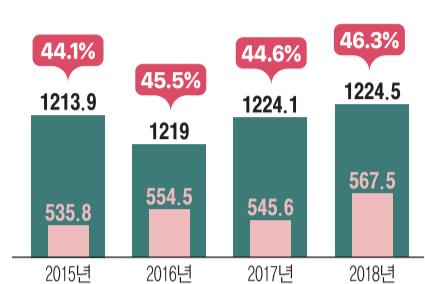
미혼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인트(P)에 불과하나, 기혼 후에는 27.6%p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신·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주된 경력단절 사유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로 전년(44.6%)보다 1.7%p 올랐다. 남녀 고용률 차이도 2017년 20.4%에서 지난해 19.9%로 좁혀졌다. 혼인상태별로 미혼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1.6%p에 불과했다. 단 기혼(유배우)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7.6%p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선 소폭 축소됐으나, 기혼 여성의 고용률(53.5%)은 수년째 정체돼 있다.

임신·출산,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주된

母 육아휴직 사용률 11.9% 불과
어린이집 늘었지만 경력단절 여전
주당 남 43.9·여 38.3시간 일해

맞벌이 가구 규모 (단위 : 만 가구)



경력단절 사유 ※출처: 통계청



서 일·생활이 비슷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자 43.9시간, 여자 38.3시간으로 전년보다 각각 1.3시간씩 감소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보다 29시간 줄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1.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각각 2.1시간, 0.6시간 줄었다. 초과근로시간은 5~9인 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전체 사업체에서 감소세다.

한편, 지난해 15세 이상 국민의 일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단 각각 12분, 18분 증가했다. 희망 여가시간(평일 4.0시간, 휴일 6.2시간)에 비해선 부족하나, 실제 희망 여가시간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는 추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의사, 주 45.9시간 일하고 월 1342만원 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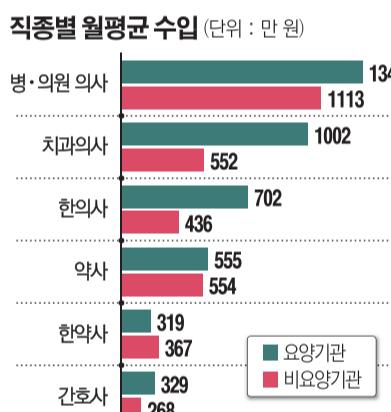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월평균 수입이 134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치과의사(1002만 원), 한의사(702만 원)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 인력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기관 등 요양기관 근무비율이 각각 88.8%, 98.0%, 88.9%, 84.4%에 달했으나, 한의사(60.7%)와 작업치료사(43.1%)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체 등 비요양기관 근무비율이 각각 24.1%, 20.7%, 43.1%로 다른 보건의료인력보다 높았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지역별 월평균 수입을 보면, 의사와 약사, 한의사는 농촌 지역,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중소도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인력의 수입이 많았다. 의사(요양 1342만 원, 비요양 1113만 원), 치과의사(요양 1002만 원, 비요양 552만 원), 한의사(요양 702만 원, 비요양 436만 원), 간호사(요양 329만 원, 비요양 268만 원) 등 의료인은 요양기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치과 1002만원·한의사 702만원
간호사·한약사 300만원대 수입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보다 수입이 많았으나, 한의사(요양 319만 원, 비요양 367만 원), 간호조무사(요양 186만 원, 비요양 191만 원) 등은 비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수입이 더 많았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직종에서 정규직 비율이 80% 이상으로, 비요양기관에 비해 높았다. 요양기관 활동 인력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의사 45.9시간, 치과의사 45.0시간, 한의사 49.1시간 등이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위생사는 요양기관 활동 인력이 비요양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었으며, 다른 직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 형태는 요양기관 종사 인력의 경우 간호사는 3교대(54.8%), 상근

직(37.6%) 순으로 많으며, 간호조무사는 상근직(63.5%), 3교대(27.2%) 순이었다.

월평균 야간근무 횟수는 간호사 4.0회, 간호조무사 2.5회였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4.4회), 간호조무사는 요양 병원(4.6회)의 야간이 짙었다.

이직 횟수는 약사(3.3회), 물리치료사(2.9회), 방사선사(2.8회), 간호조무사(2.7회), 치과위생사(2.5회) 순으로 많았다. 주된 이직 사유는 보수 및 소득 수준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간호사(32.5%), 간호조무사(20.1%), 임상병리사(19.2%), 치과위생사(17.6%) 순으로 높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동작구, 강남·마용성 제치고 공시가 상승률 1위

2020년 단독주택 공시가 공개

초고가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재벌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등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50%대 수준으로 올렸던 것을 고려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종 가격을 공시하기 전 소유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개한 가격이다. 이의접수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내년도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공시와 관련한 동향을 가늠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인 용산구 한남동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3㎡)의 공시가격이 올해 270억 원에서 내년 277억1000만 원으로 2.6% 오른다. 이 회장의 자택 공시가격은 작년 169억 원에서 올해 270억 원으로 59.7% 올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1184.62㎡)도 165억 원에서 167억8000만 원으로 1.7%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전국 4.5%·서울 평균 6.8% 상승 올해 50%대 올랐던 초고가 주택 내년 공시가 인상 1~2% 그칠 듯 이명희 회장 자택 '가장 비싼 집' 내년 2.6% 오른 277억1000만 원

52.7%(108억→165억 원)를 기록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자택(488.99㎡)은 141억 원에서 145억 1000만 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의 상승률도 50%에 가까운 48.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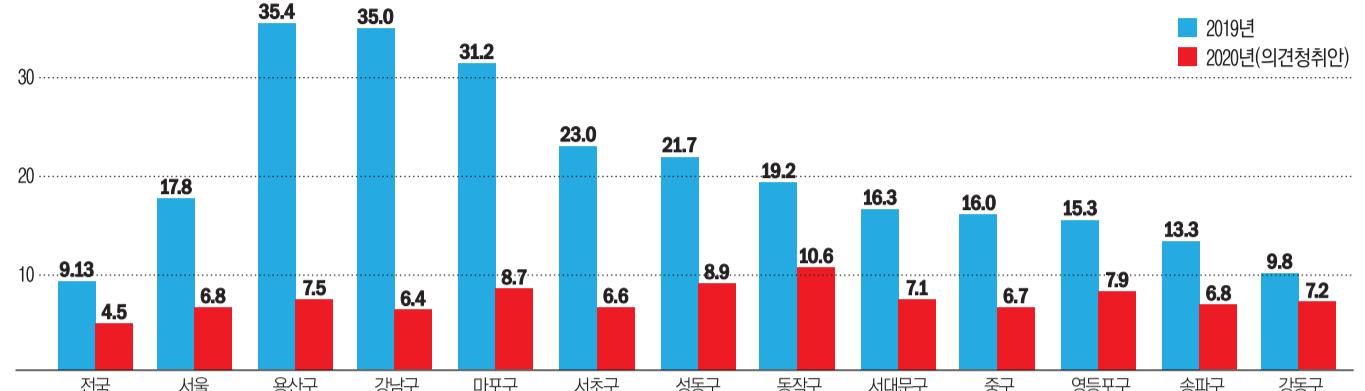
국토부가 공개한 용산구의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7.5%다. 올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던 초고가 주택의 내년도 상승률은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17일 내년도 공시가격 운용 방

안을 제시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이상이면서 현실화율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55%에 이르도록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세 9억 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시세변동률을 반영하고, 시세 9억 원 이상인 단독주택 가운데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곳은 그 수준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희 회장 자택 등 초고가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이미 올해 현

서울 주요 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출처: 국토교통부
■ 2019년
■ 2020년(의견청취안)

실화율 55%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소폭 오른 것은 시세 상승분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순위 2위였던 이해 육 대림산업 부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자택(2617.37㎡)의 공시가격은 167억 원에서 178억8000만 원으로 7.1% 올랐다. 작년 135억 원에서 올해 167억 원으로 23.7% 오른 곳이다.

한편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가격 상승률은 4.5%다. 올해(9.13%) 절 반 수준이다. 서울의 변동률은 올해

17.8%에서 6.8%로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작구가 10.6%로 가장 높다. 이어 성동(8.9%)·마포(8.7%)·영등포(7.9%)·용산구(7.5%) 순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3.4%)다.

동작구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은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위해 그해 시세변동률, 현재 현실화율과 목표치 간의 격차를 따져 그 다음해 공시가격 수준을 계산하기로 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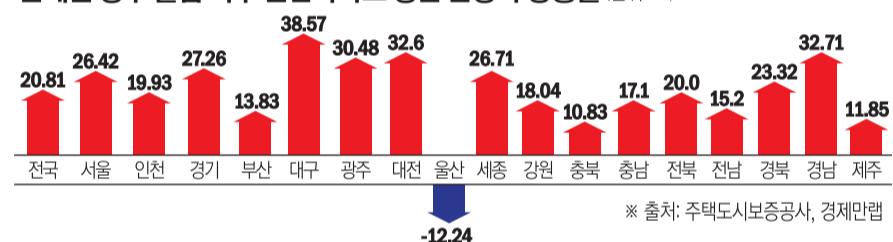
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3.0%로 현실화율 목표치는 55%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동작구의 경우 시세변동률도 높고 현실화율 제고 대상인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도 많아서 변동률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역별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은 울산(-0.2%), 경남(-0.4%), 제주(-1.6%)로 각각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거래량 감소로 시세가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서지희 기자 jhsseo@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상승률(단위: %)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제만랩

文정부, 18번이나 대책 쏟아냈지만 대구 39%·서울 26% 분양가만 폭등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안 해” 58%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도 깊어졌다.

18일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 10월까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20.8%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3.3㎡당 평균 분양가는 984만 원이었지만 올 10월엔 1189만 원까지 뛰었다.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였다. 대구의 평균 분양가는 29개월 동안 38.6%(3.3㎡ 기준 1049만 원→1453만 원) 급등했다.

지난해 분양구 범어동 ‘힐스테이트 범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058만 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년 평균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액수다. 대구에서 3.3㎡ 기준 평균 분양가는 2000만 원을 넘어선 단지는 힐스테이트 범어가 처음이었다. 올해도 인근 ‘수성범어W’가 3.3㎡당 2057만 원가량에 분양됐다.

대구 다음으로 경남(32.7%·797만 원→1058만 원)과 대전(32.6%·903만 원→1198만 원), 광주(30.5%·953만 원→1244만 원) 순으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7년

5월 2112만 원에서 올 10월 2670만 원으로 26.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분양가가 떨어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울산뿐이었다. 지역 산업 위기로 주택 수요가 줄고 있어서다. 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0만 원에서 1036만 원으로 12.2% 떨어졌다.

경제만랩 측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 분양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수요가 늘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보다 웃돈을 받고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다는 ‘로또 아파트’ 기대감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청약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청약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분양 열기가 다시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까지 일어나고 있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막론하고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에서 전국 19세 이상 응답자 500명 가운데 57.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FUTURING SMART ENERGY

LS산전의 스마트 에너지로 더 큰 미래를 밝힙니다

인류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환경까지 생각하는 LS산전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 LS산전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갑니다



LS 산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저물가,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한계”

경기·금융안정·정책 효과 부작용 등 고려해 금리인하 결정
두 번 금리인하로 주택자금 수요 늘었지만 물가에 중점 둬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다.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중요하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가진 물가 설명회를 겸한 기자들과의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한 신인석 위원 외에도 조동철 추정 위원이 사실상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면서 금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커질 것을 염려한 사전 진화로 풀이된다. 실제 11월 의사록에서 조동철 추정 위원은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그 시점은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지난 통화정책 결정회의 의결문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 회의로 이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지



만통화정책만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수요압력이 약한 것도 있고, 그 외에 공급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같은 정책적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이런 저물가에 대해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금리인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도 “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할 것

인지의 여부는 물가, 경기상황, 금융안정 상황, 그리고 정책, 만약 추가조정을 한다면 그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대책에서 집값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저금리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어제(16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고, 또 그 외에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

겨져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 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저금리를 지목했다. 금리인하가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에 비춰볼 때 지난 두 번의 금리인하 조치는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보면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이 주목했던 미·중 무역갈등은 한고비를 넘겼고, 반도체 경기는 개선 가능성에 염보이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한은의 무게추가 금융안정으로 옮겨갈지도 관심사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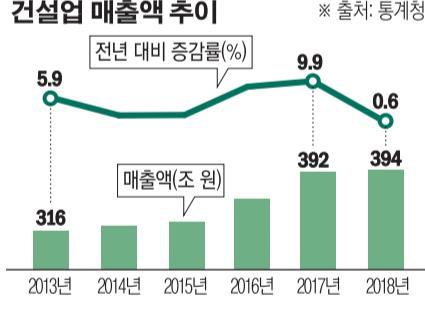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과 스테판 루벤(앞줄 오른쪽 세 번째) 스웨덴 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체 매출 3.5% 감소…대기업은 5.5% 증가

통계청, 작년 건설업 실적
매출 394조, 0.6% 증가 그쳐
대기업 해외 매출 17% ‘껑충’

지난해 건설업의 기업체당 매출액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매출액 증가율이 기업체 수 증가율에 못 미친 탓이다. 단 상위 100대 기업은 매출액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건설업 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기업체 수는 7만5421개로 전년보다 3045개(4.2%), 종사자 수는 169만8000명으로 2만8000명(1.7%)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1039개로 4.0%,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6만4382개로



4.3% 늘었다. 종사자 수는 종합건설업체에서 54만3000명으로 3만2000명(6.3%) 늘었으나, 전문직별 공사업체선 115만5000명으로 5000명(0.4%) 줄었다.

건설업 매출액은 394조2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종합건설업체가 244조3000억 원으로 0.4% 감소하고, 전문직별 공사업체는 149조

9000억 원으로 2.1% 늘었다. 매출액 증가율과 종사자 수 증가율이 기업체 수 증가율을 밀들면서 기업체당 매출액은 52억 2600만 원으로 3.5%, 종사자 수는 23명으로 2.3% 각각 감소했다.

단 대기업은 웃었다. 건설업 상위 100대 기업체의 매출액은 146조 원으로 전년보다 7조6000억 원(5.5%) 증가했다. 국내 매출액은 2.7% 느는 데 그쳤으나, 해외 매출액이 16.9% 늘었다. 반면 그 외 기업은 매출액이 24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4000억(2.1%) 감소했다. 해외 매출액이 10조8000억 원에서 5조6000억 원으로 ‘반토막’ 난 탓이다. 이에 따라 100대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37.1%로 전년보다 1.8%포인트(P) 확대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해상 내비게이션’ 구축… 연안 100km까지 최적항로 안내

LTE망 통신… 내년 시범운영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해상 LTE망을 통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이하 e-내비게이션)가 시범 운영된다.

2021년부터 본격 도입될 경우 연안 100km 해상까지 선박이나 어선에서 LTE급 속도의 통신이 가능해져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최적항로 서비스 및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등이 제공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초고

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한 e-내비게이션을 시범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e-내비게이션은 도입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디지털 기반의 단일 모니터링 체계로 운영돼 운항자가 안전운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해양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내비게이션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및 선박·항만 효율 증진을 위해 2014년에 채택한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e-내비게이션은 현재 국제표준 개발이 완료돼

국제적인 시행 기반도 마련됐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1년부터 세계 최초로 LTE-M을 통해 e-내비게이션을 시행해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나 최적항로 서비스 및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서비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334억8400만 원을 투입, KT 컨소시엄과 전국 연안에 약 620개의 LTE-M 기지국과 LTE-M망 운영센터(세종시)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조명래 장관 “40% 저감효과”

조명래(사진) 환경부 장관이 올해 3월 추진했던 애외 공기청정기 설치를 두고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선언하고, 고농도 압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구해야 한다”며 “이때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투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배출량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공기 정체가 되면서 이른바 중증이 형성돼 고농도가 압축화되는 게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올해 3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애외 공기청정기 설치와 인공강우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정화장치와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고농도가 아주 심한



경우 공기정화장치를 활용했을 때 농도가 30~40% 낮아진다는 경험도 있다”며 “따라서 한국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기술력의 한계가 있어 공식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과학의 문제를 다시 나왔다”며 “미세먼지도 과학으로 더 대응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한 방법이 바로 애외 공기청정기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선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공식 정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 과제로 민간에서 먼저 기술 개발해야 하고 어쨌든 미래에 발굴해야 할 기술”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총선 출마하면 그만?… 靑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

노영민 실장, 수도권 2채 보유 11명에 6개월 내 처분 권고
‘불가피한 사유’로 빠져나갈 명분… 수도권 등 기준도 모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고위직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로 집을 팔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노 실장이 ‘데드 라인’으로 제시한 6개월 안에 청와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용인하겠다고 한 부분도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주택’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던 날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임직 11명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들 11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내 역을 통해 추정해 보면 수도권 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 12명~13명으로 압축된다.

이들 가운데 아직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공직자퇴 시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무총리 인사를 발표하면서 연말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출마설이 잣아들지 않고 있고, 고민정 대변인도 출마설이 나온다. 여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교체설 등 쇄신 차원의 청와대 개편 방안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공직자는 내년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내세워 매각 권고를 피해가는 사람이 나올 공산도 크다. 청와대는 올해 3월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매각 의사를 탄진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청와대 고위직들은 이미 ‘불가피한 사유’를 제출한 상태다.

일례로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성남 분당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유송화 비서관도 비슷한 처지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대거 매입한 세종시를 빼고 수도권으로 한정했다는 점,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등 짐짓하지 않은 기준도 향후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일환 기자 whan@



정동영(왼쪽부터) 민주평화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한 ‘야 3+1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선택제 도입 ‘야 3+1 합의안’ 민주당 거부

민주 “선택제 재고해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선택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

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선택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마련한 선거법 조안에 근접한 내용이다.

선택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조짐이 엿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3+1’ 선거제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택제를 재고해 달라는 입장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민발안제 입법… 정치 통해 사회적 약자 돋겠다”

① 총선 뛰는 사람들

권혁기 전 靑 춘추관장 용산 출마



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권 전 관장은 특히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정치에 나설 뜻을 굳혔다고 했다. 권 전 관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2017년 대선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경제폭망론’으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정치인 권혁기’로서의 결심도 여기서 출발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뒤 고향인 용산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권혁기(사진) 전 관장은 18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권 전 관장은 올해 1월 청와대를 나와 고향인 용산에서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19일 선거사무소 문

좌관, 국회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정당 실무자로서 수십 차례의 선거를 치러 본 ‘베테랑 정당인’이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선수’로 나선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실제 만난 유권자들은 정치인이 멋진 인사말이나 그럴듯한 공약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권 전 관장에게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법안을 만들고 싶은지 묻자 “국민발안제”라는 답변이 나왔다. 국민발안제는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권 전 관장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은 사실상 국민들이 발의한 법”이라며 “이런 현상이 점점 거세질 것이다. 제도화하고 정착되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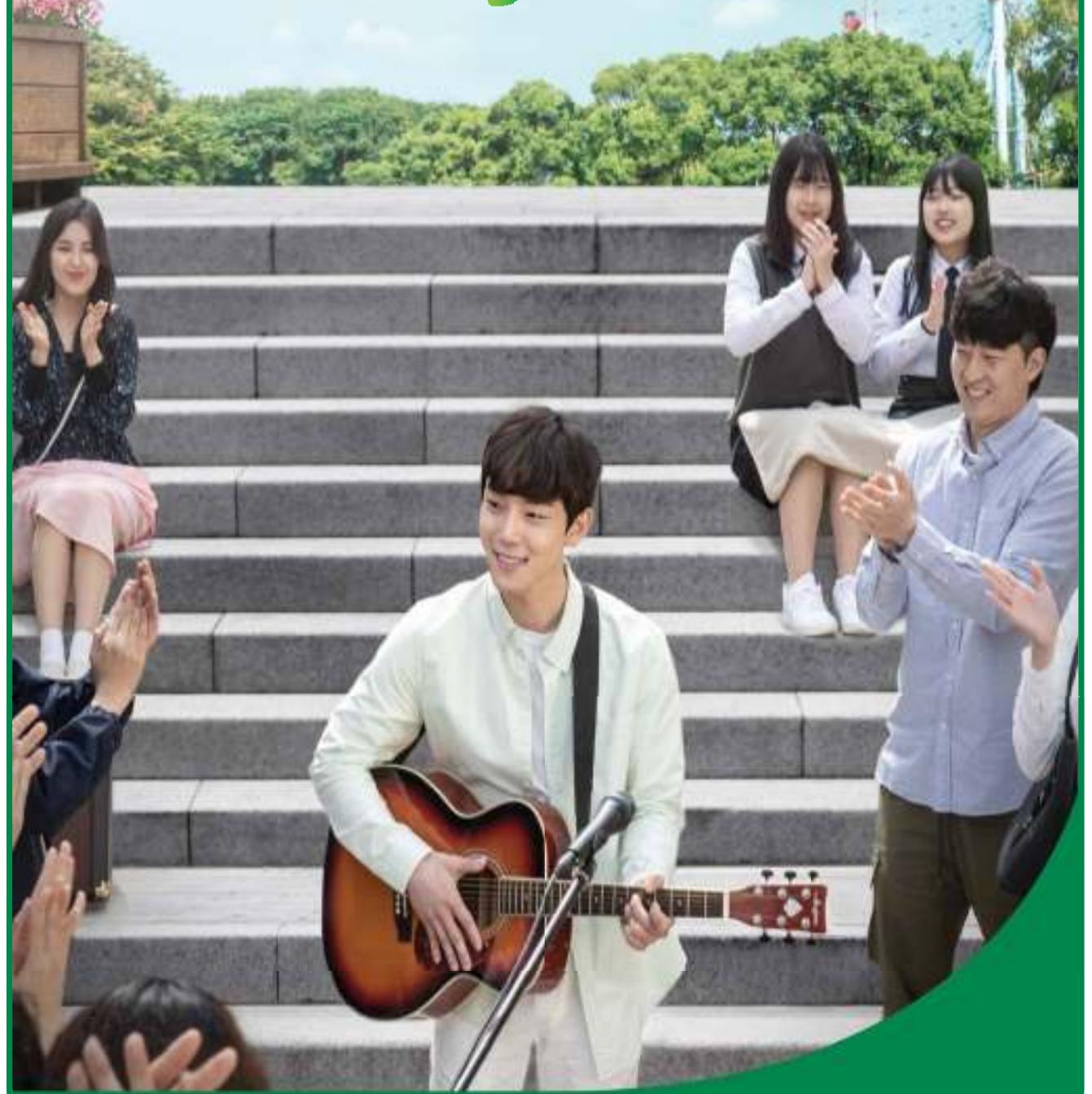
유종현 기자 lamuziqi@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일이 설레는 건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꿈을 펼쳐라 Dream Big DB



스타트업 투자자 '성장→수익' 전략 수정 글로벌 배달업계 '합종연횡' 속도

우버, 인업체에 현지사업 매각
배달의민족은 獨 업체가 인수
수익 따라 국경 넘은 M&A 활발

글로벌 음식배달업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성장'에서 '수익'으로 옮겨가면서 부진한 사업을 서둘러 털어내 수익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업계의 조바심이 배경에 깔려 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 테크놀로지의 음식배달서비스 '우버이츠'가 인도 사업을 현지 토종업체 '조마 토미디어'에 매각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최대 음식배달서비스업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한다고 발표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의 '데이크어웨이닷컴'과 투자회사 '프로서스'가 영국의 '저스트잇'을 놓고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급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음식 배달서비스업계의 기업 인수·합병(M&

딜리버리히어로와 테이크어웨이닷컴의 주가 추이(단위: %)



A)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이다. WSJ는 그 첫 번째 이유로, 투자자들이 위워크와 우버 등 스타트업들의 대규모 손실 등 문제를 목격한 만큼, 스타트업이 어떻게 적자를 해소하는지에 더욱 주목하게 된 점을 꼽았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묻지 마 투자'를 하던 과거 관행이 더는 먹히지 않는 것이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11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우버이츠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면서 "앞으로 18개월 안에 현지에서 1~2위에 들지 못하는 부문은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 확신이

있는 시장에만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버는 이미 9월 한국에서 우버이츠를 접는다고 발표했고, 싱가포르의 경쟁사인 그랩 지분 27.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남아시아 8개국 사업을 그랩에 넘긴 전력이 있다.

HSBC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우버가 경쟁이 치열한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면 연간 약 5억 달러(약 5828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것도 음식배달서비스업계엔 위기일 수 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음식배달·차량공유 등의 주문형 서비스에 대한 벤처캐피털(VC)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경쟁사와의 제휴가 더 매력적이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일스 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투자금을 모으기가 어렵고, 고객 1인당 경제효과가 크지 않은 배달시장에서는 합병에 더 목이 마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서영 기자 0jung@

보잉 '737맥스' 끊기자 GE '돈맥경화' 후폭풍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추락 사고 기종인 737맥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잉 사태로 이미 재무적 압박을 받아온 제너럴 일렉트릭(GE)이 737맥스 생산 중단 결정 여파로 현금 흐름에 더욱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GE는 프랑스 방산업체 사프란과의 합작사를 통해 737맥스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해왔다. 보잉이 4월부터 737맥스 생산을 월 52대에서 42대로 감소하면서 GE의 분기별 현금흐름은 4억 달러(약 4657억 원) 감소했다.

보잉이 전날 발표한 생산 중단이 장기화하면 GE의 현금흐름이 더욱 감소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생산 중단으로 항공기 제조 중 대금 결제가 안 이뤄져 GE가 이미 생산한 엔진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GE 주가는 이날 0.63%, 사프란은 1.52% 각각 하락했다.

GE 경영진은 737맥스 이슈에 대해 자료 제출이나 공개 발언으로 당국에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면서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생산이다 시 정상화하면 현금흐름도 회복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존 인치 고든스켓 애널리스트는 "생산 중단은 GE의 현금수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다만 1개의

GE 영업익 증 각 사업부 기여도



엔진 프로그램이 GE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잉 737맥스 생산이 정상화 하지 않으면 GE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항공기 부문은 매출 기준으로 GE의 최대 사업이며 이 부문의 건전성은 전사적인 경영난 탈출에 매우 중요하다. GE는 최근 몇 년간 핵심 사업부인 전력 부문과 금융 자회사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배당금을 삭감하고 여러 사업부를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GE는 바이오 의약품 사업 매각으로 현금 210억 달러를 손에 쥘 예정이다. 여기서 얻은 매각 이익 대부분은 부채를 줄이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는 보잉 협력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다. 737맥스의 기체와 첨단 부품을 납품하는 영국 시니어는 11% 주저앉았고, 또 다른 영국 협력업체인 메깃은 1.5% 떨어졌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탄핵" 맷말 듣 시위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탄핵하라(IMPEACH)'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구호 아래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트럼프를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할지 결정하는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며 분노했다.

캘리포니아/AFP연합뉴스

공장 세운 시세이도 '韓·中 리스크'에 울상

한·일 관계 악화·홍콩 시위 역풍에 '매출 하락' 전전긍긍

일본 대표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가 36년 만에 자국에서 신공장을 가동한다. 그러나 한·일 관계 악화와 홍콩 시위 등 '한·중 리스크'에 신공장이 회사 계획대로 수익에 공헌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니혼케이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적했다.

시세이도는 연말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도치기현 오타와라 시에 고급 색조 브랜드인 '나스(NARS)' 신공장을 가동한다. 그만큼 새 공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시세이도는 2년 전 방일 관광객 수요와 중국 내 '메이드 인 재팬' 제품 판매 호조에 따라 나스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나스 공장에서는 중·고가 가격대의 스키incare 제품

인 '에릭실' '입사(Ipsa)' 등을 생산한다. 그 목적은 기회손실 막기다.

시세이도는 올여름만 해도 생산능력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기회손실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세이도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본산 화장품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져 현지 매장 판매가 증가한 것은 물론 방일 관광객 수요도 급증했다.

이에 시세이도는 나스 공장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오사카 이바라키 공장, 2022년 상반기는 후쿠오카 구루메 공장을 잇따라 가동시킬 예정이다.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한국·중국 리스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갈등으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시

시세이도의 실적 추이



세이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시위사태 영향으로 중국 본토에서 홍콩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현지 매출이 대폭 하락했다. 그 만큼 감가상각비도 평창했다.

골드만삭스증권의 야마구치 게이코 애널리스트는 11일자 보고서에서 "시세이도의 생산설비 투자는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JP 모건증권의 쓰노다 리쓰코 애널리스트도 "증산 투자가 리스크로 돌아설 가능성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188조 달러〉

"지난해 글로벌 부채 사상 최대 또 경기침체 오면 대응 불가능"

IMF, 신홍국·개도국에 경고

글로벌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IMF 블로그에 올린 '글로벌 부채 데이터베이스'에서 작년 말 기준 세계 부채가 188조 달러(약 21경9396조 원)로 1년 전보다 3조 달러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6%에 달하는 수준이다.

IMF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상승률은 1.5%로 2004년 이후 최저였지만, 국가별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경기 침체가 올 경우 대응이 불가능한 국가가 다수라고 경고했다.

특히 신홍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평균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8%로 미국 등 선진국 평균 265%에 근접했다. IMF는 또 대부분 국가에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전과 달리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8%로 미국 등 선진국 평균 265%에 근접했다.

IMF는 또 대부분 국가에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이전과 달리 부채 비율이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58%로 미국 등 선진국 평균 265%에 근접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면서도 "민간 부문 부채의 급격한 삭감은 이미 빚더미에 앓은 공공 부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다음 경기침체가 오기 전에 대응력을 기르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면서도 "민간 부문 부채의 급격한 삭감은 이미 빚더미에 앓은 공공 부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다음 경기침체가 오기 전에 대응력을 기르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0jung@

2018년 글로벌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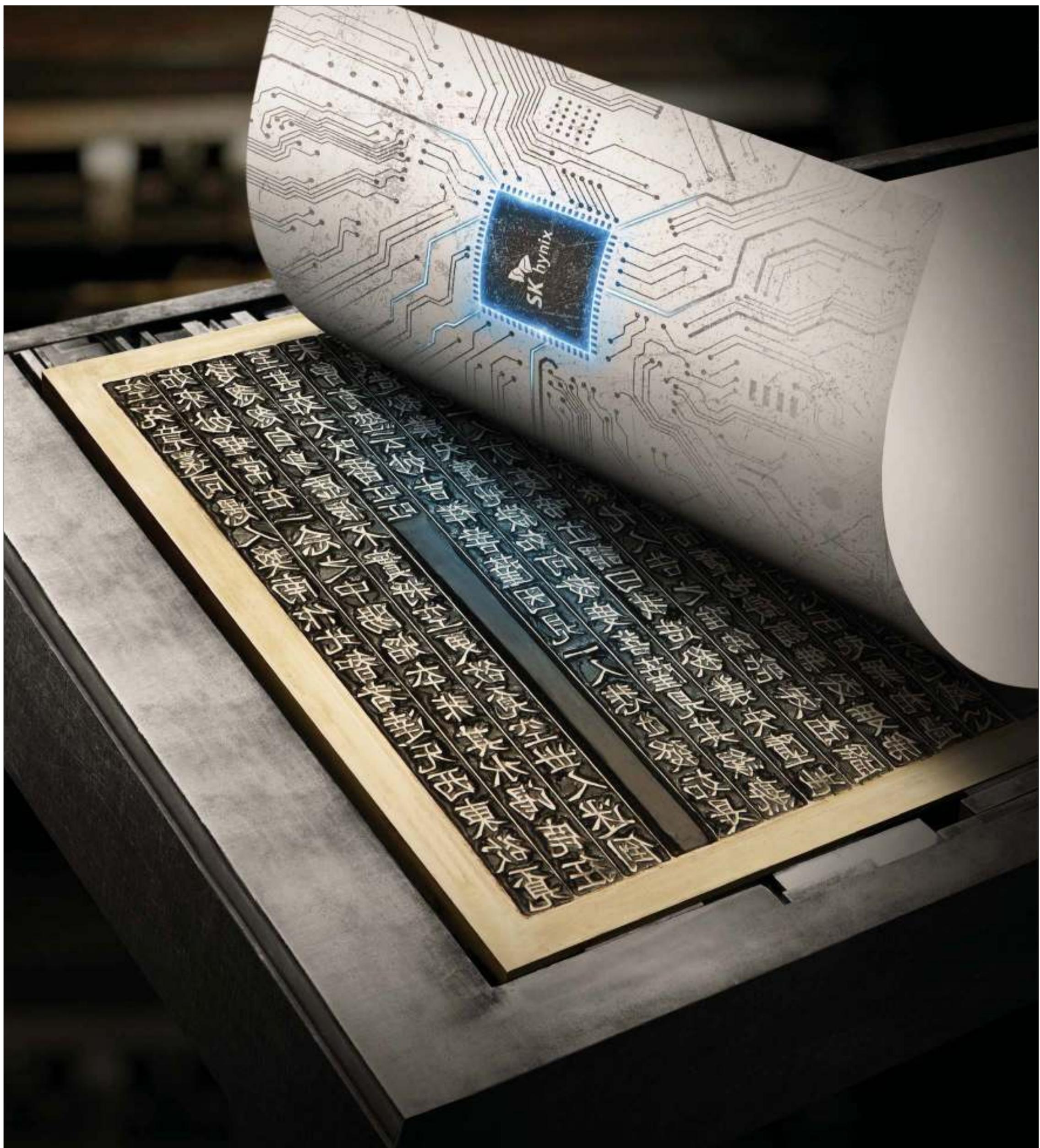
※출처: IMF

이 30%포인트 높았다. 신홍국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5곳 중 1곳꼴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70%를 넘었다. 개도국의 40%는 위험한 수준이다.

기업부채의 경우, 공공부채와 달리 나라별로 상황이 달랐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IMF는 "선진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 현재는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경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면서도 "민간 부문 부채의 급격한 삭감은 이미 빚더미에 앓은 공공 부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다음 경기침체가 오기 전에 대응력을 기르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서영 기자 0jung@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의 고장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반도체를 만듭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은행-핀테크 '무한경쟁시대'… 혁신·보안이 '생존 열쇠'

'오픈뱅킹' 서비스 정식 출범

모든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과 금융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규 시장 참여자도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오픈뱅킹 제2금융권 확대 적용과 신규 참여자 확보, 보안 강화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완성형 오픈뱅킹 서비스 구축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총 315만 명, 47개 업체로 시작한 오픈뱅킹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10월 30일 시중은행 열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이날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정식 서비스에는 16개 은행을 포함해 총 47개 업체가 참여했다.

오픈뱅킹은 은행 공동업무 시스템 플랫폼으로 이용기관은 시스템 접속만으로 전체 은행과 연결돼 모든 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 핀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 참여자도 금융결제원 인증만 받으면 오픈뱅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차별화 통한 고객 편의 향상

우대금리·핀테크 공동계좌 등 47개 업체 특화상품 출시 기대

'완성형 오픈뱅킹' 구축하려면

저축銀 등 제2금융권 확대 적용
금융정보 유출 대비 보안 강화
사고 발생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으로 은행은 우대금리 상품과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과 특화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핀테크 기업은 그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비제휴은행 계좌와 연결로 편의성이 증가하고, 전 은행 계좌 연결체크카드와 핀테크 공동계좌 등 신규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금융권 편입과 보안 문제 해결해야 오픈뱅킹 '완성' =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오픈뱅킹 '속도전'으로 정식 서비스가 실시됐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당장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



융권은 배제된 채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됐다.

특히, 저축은행 업계는 오픈뱅킹에서 배제된 데 불만을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2금융권 결제 코드 만 넣으면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는 2금융권끼리 자체 오픈뱅킹 서비스를 먼저 하고 이후 상황을 봐서 오픈뱅킹에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강화 문제가 뒤따른다. 이 밖에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보안 사고가 발생 때 책임 소재를 구분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이 보안 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아예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며 "시스템 점검과 앱 보안 점검을 모두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 서비스에 중·소형 사가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픈뱅킹 정식서비스 참여 신청 기업은 177곳에 달했다. 은행 18곳을 제외하면 핀테크 사업자가 1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인증을 받은 7곳만 이날 정식 서비스 개시일에 함께했다.

이 밖에 오픈뱅킹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나금융 연구소는 10월 펴낸 보고서에서 "혁신금융 서비스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기존 은행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는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며 "대형 사업자만 살아남는 구조이므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손태승(두번째 줄 가운데) 우리금융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희망산타' 발대식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금융

희망 들고 찾아온 '우리금융 손타클로스'

'산타 캠페인' 임직원 발대식

우리금융은 함께여서 더 좋은 우리, 희망 산타' 캠페인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금융은 전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손태승 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우리금융 임직원이 '희망 산타'가 돼 다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임직원들은 1000명의 어린이에게 선물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포장했다. 이 선물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포용적 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여행자보험, 모바일로 선물하세요

농협손보, 보험상품권 출시

친구 A씨 결혼식에 참석한 B씨는 신혼여행 관련 얘기를 나누다 A씨가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즉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구매해 A씨에게 선물했다. 출국차 공항에 도착한 A씨는 친구에게 받은 상품권으로 농협손보 모바일앱에 접속해 'On-Off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G마켓,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쿠폰처럼 보험 상품도 쿠폰을 통해 구입하거나 선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NH농협손보보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직접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고객은 NH농협손보보험 모바일 앱과 웹에서 다이렉트 전용 보험상품을 선택 후, 상품권 번호를 입력하여 보험료를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판매되는 모바일 보험상품권

은 정액형인 3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2만 원권 등 총 네 종류로, 현재 G마켓, 옥션, NH멤버스 포인트몰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는 On-Off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밀착형 보험이다.

농협손보는 내년 상반기 중 제휴 온라인 쇼핑몰을 5개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레저상해보험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손보에서 출시한 모바일 보험상품권은 4월에 지정된 'On-Off 해외여행보험'에 이어 6월에 두 번째로 지정된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다. 더욱이 모바일 보험상품권을 활용해 On-Off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가능해집에 따라 보험 가입에서 결제까지 두 개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이용할 수 있게 돼 고객은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올해 1~3분기 금융민원이 6만1000건을 넘어섰다. 전산 장애로 인한 증권업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18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금융 민원 발생·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금융 민원 발생 건수는 6만1052건으로, 전년(6만2540건) 대비 2.4% 줄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7492건으로 같은 기간 4.9% 증가했다. 인터넷·모바일, 펀드 관련 민원은 증가했으나 여신, 예·적금 등 전통적 유형의 민원은 줄었다.

특히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 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 관련 분쟁 민원이 3분기(205건)에 집중적으

로 나왔다.

손해보험 민원은 1년 전과 비교해 2.6% 늘어난 2만268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9619건)이 13.2%나 급증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3162건으로 12.1% 증가했다. 2월 KB증권과 8월 유진투자증권의 전산 장애 피해 민원(349건)으로 '내부 통제·전산' 관련 유형이 많았다.

반면 비은행(1만2581건)과 생명보험(1만5135건)에서는 각각 11.8%, 6.7% 줄었다. 비은행에서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와 연계 대부업자 관련 민원(127건)이 많이 감소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3분기 누적 금융민원 '6만1000건' 돌파

로 나왔다.

손해보험 민원은 1년 전과 비교해 2.6% 늘어난 2만2682건을 기록했다. 특히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9619건)이 13.2%나 급증했다.

금융투자 민원은 3162건으로 12.1% 증가했다. 2월 KB증권과 8월 유진투자증권의 전산 장애 피해 민원(349건)으로 '내부 통제·전산' 관련 유형이 많았다.

반면 비은행(1만2581건)과 생명보험(1만5135건)에서는 각각 11.8%, 6.7% 줄었다. 비은행에서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와 연계 대부업자 관련 민원(127건)이 많이 감소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 투톱' 꼬인 실타래 풀었나 금감원, 3년 만에 예산 증액

티타임 정례화 등 '화해무드'

경영평가 B등급… 한 단계 상향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금감원은 3년 만에 예산 증액을 점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기관 간의 '화해무드'다. 두 기관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티타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위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을 직접 찾는 등 꼬인 실타래를 풀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커졌다.

관건은 금융위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전년에 비해 70억 원(2%) 줄어든 3556억 원으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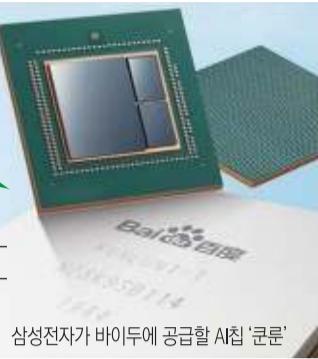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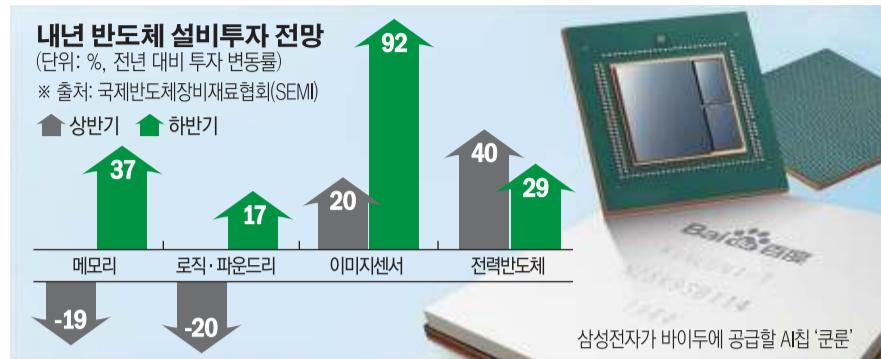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이었다.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경영을 잡겠다는 이유였지만, 당국 투톱 간의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 파운드리 탄력…‘中 최대 검색엔진’ AI칩 내년 양산

바이두의 14나노 쿠룬 수주
클라우드·엣지컴퓨팅 등 활용

“파운드리, 반도체 경기 견인”
2020년 설비투자 증가 예상
D램 현물 가격 3달러로 반등



삼성전자가 중국 대형 인터넷 검색엔진 기업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만들어 공급한다.

내년 반도체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바이두(Baidu)의 14나노 공정 기반 AI 칩 ‘쿠룬(KUNLUN)’을 내년 초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바이두의 첫 파운

드리 협력이다. 삼성전자는 클라우드, 엣지컴퓨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AI 칩까지 파운드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긴밀하게 협조했다.

바이두의 ‘KUNLUN(818-300, 818-100)’은 클라우드부터 엣지컴퓨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AI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칩이다. 바이두의 자체 아키텍처 ‘XPU’와 삼성전자의 14나노 공정, I-Cube(Interposer-Cube)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 고성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I-Cube는 SoC(시스템온칩)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Si-Interposer) 위에 집적하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2.5D 패키징 기술이다. 이 기술은 각각의 칩을 1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전송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줄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에 최적화된 파운드리 솔루션을 적용해 기존 솔루션 대비 전력(PI)과 전기 신호(SI) 품질을 50% 이상 향상했다. 칩에 신호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노이즈를 개선함으

로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회로가 더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응용처에서 파운드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내년 파운드리 시장은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 반등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지출액(Fab Equipment Spending)은 580억 달러(약 68조 원)로 올해보다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EMI는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 반등 요인으로 3D 낸드플래시와 파운드리의 투자 규모 확대를 꼽았다.

특히 올 상반기 57%(전 반기 대비) 급감했던 3D 낸드플래시 설비투자는 하반기 다시 70% 급증할 전망이다. 업계는 중국의 3D 낸드 신규 진입을 위한 설비 투자도 내년 반도체 설비투자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로직·파운드리 설비투자도 올 하반기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장은

대만 TSMC와 미국 인텔이 이끌고 있다.

일본 소니가 주도하고 있는 이미지센서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지센서 설비투자 규모는 내년 상반기 20% 증가한 뒤, 하반기 92%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전력반도체는 설비투자가 내년 상반기 40%, 하반기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최근에는 D램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이달 들어 D램 현물 가격은 10% 이상 올랐다. D램 현물 가격은 최근 5개월간 계속 하락하다 이달 5일 기당(DDR4 8Gb 기준) 2.73달러에서 16일 기준 3달러를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물 가격 상승에 이어 고정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분기에도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며 “내년 1월부터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공급과잉 문제는 내년 중반부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두산인프라코어 ‘신형 휠로더’ 핀업디자인어워즈 최고상 수상

두산인프라코어는 신형 휠로더 디자인으로 ‘2019 핀업디자인어워즈’에서 최고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핀업디자인어워즈는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대한민국디자인대상’, ‘굿디자인’과 함께 국내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핀업 최고상을 받은 휠로더 디자인은 두산인프라코어가 1989년 처음 휠로더 제품을 출시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고유의 패밀리룩을 유지하면서 대표 색상 ‘카이로스 오렌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진회색’ 영역을 넓혔다. 김기송 기자 kissong@



손짓하면 원하는 색·부품으로…가상현실서 차 개발

현대기아차 ‘VR 개발 프로세스’ 디자이너 20명 동시 작업 가능 내년부터 전 차종 적용 계획

현대·기아차가 전통적인 자동차 개발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꾼다. 디자인과 설계 등 전반적인 개발 과정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하는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가능화해 따라 추후 자동차 개발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17일 버추얼 개발 도입을 발표하며 경기 화성시 남양기술연구소에서 VR를 활용한 디자인 품평장과 설계 검증시스템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현 현대·기아차 디자인모델개발실장은 “전통적인 디자인 과정이 스케치로 클레이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라면, 버추얼 개발은 데이터로 만든 디자인 모델을 실물에 가깝게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DDD(Data Driven Design) 프로세스를 내년부터 모든 차종 개발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올해 3월 15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VR 디자인 품평장을 만들었다. 이곳은 20명이 동시에 VR를 활용해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로, 자동차 실물을 보는 것처럼 외부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고 차 안에 들어가 내부에 타고 있듯 실내를 살펴볼 수도 있다.

품평장 내에 설치된 36개의 모션캡처 센서는 평가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1mm 단위로 정밀하게 감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자는 가상의 공간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차의 부품과 재질, 색상 등을 바꾸며 디자인을 살필 수 있다.

이번 VR 시설 도입으로 양사는 선행 디자인 모델을 일일이 실물로 제작하는 자원 소모를 줄이고, 제작 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10월 공개한 수소 전용 대형트럭 콘셉트카 네툰의 최종 디자인 평가를 이곳에서 처음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 개발하는 모든 신차에 VR 품평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중국, 인도 디자인센터와 협업해 전 세계의 현대·기아차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차를 디자인하고 품평하는 ‘원격 VR 디자인 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설계 작업에도 VR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양사는 지난해 6월 VR를 활용한 설계 품질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해왔다.

유창욱 기자 woogi@

LG, 의류건조기 리콜 전면 확대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이를 시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LG전자는 8월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차, 수소전지 가격 절감 나섰다

스웨덴 ‘임팩트 코팅스’ 기술 협력



수소전지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한 박순찬 현대차 실장과 마크 세이 임팩트 코팅스 의장.

전지 분리판 코팅 기술인 ‘물리기상증착(PVD:Physical Vapor Deposition) 세라믹 코팅’ 기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가 생산하는 수소전기차의 판매가 격을 낮춰 수소전기차 대중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임팩트 코팅스가 보유한 연료

김준형 기자 junior@

삼성전자·삼성물산 ‘노조 와해 공작’ 재발 방지 약속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8일 두 회사는 공동 입장 발표문을 통해 “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임직원 존중의 정신

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유영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3년 첫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 6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장 외에도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송영록 기자 syr@

韓·中·日 조선·철강 ‘패권전쟁’

▶ 1면서 계속

9월에는 세계 2위 철강업체인 바오우철강과 마강그룹의 합병으로 초대형 철강사가 탄생했다.

지난해 중국 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바오우철강의 연간 조강 생산량은 6743만 톤, 마강그룹은 1964만 톤이다. 양사 합병에 따른 생산량은 8707만 톤 규모이며 추가로 중견 철강업체 인수를 확정하면서 조강능력 1억 톤을 바라보게 됐다. 세계 1위인 루체부르크의 다국적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9250만 톤)을 추월하게 된다.

아울러 올 초 덕용철강은 국유 철강사 ‘발해강철’을 인수해 ‘코끼리를 삼킨 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강 생산 300만 톤 규모인 중소형 민영 철강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3000만 톤급 철강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사강철강이 요녕성 국자위 산하 ‘동북특수강’을 인수하며 대형 민형사의 타 지역 국유 철강사를 인수한 최초 사례를 만들어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다”면서 “특히 임해지역의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수출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 철강업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 기술로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 뚫겠다”

인터뷰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PR데이' 4번째 업체로 선정
2차전지 부품 국산화 성공… 국내 1% 기술력 자신감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절실

“2차전지 핵심 부품소재인 리드탭은 일본 스미토모가 글로벌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자체 개발한 리드탭으로 일본이 장악한 시장을 뚫을 것입니다.”

17일 충북 청주시에서 만난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는 일본이 장악한 리드탭 시장에서 자사가 독자 개발한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진테크놀로지는 이노비즈협회가 진행하는 '이노비즈 PR데이'의 네 번째 업체로 선정됐다. 이노비즈RP데이는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이노비즈협회와 기자단은 유진테크놀로지의 제1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방문했다.

유진테크놀로지는 2차전지 소재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뿌리기업이다. 리드탭뿐 아니라 정밀금형, 기계부품, 자동화 장비 등 2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인 설비와 정비를 개발, 제조한다. 미국 미시간,

중국 난징, 폴란드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으며 국내 직원 93명을 포함한 전 직원 수는 130명이다. 이 대표와 그의 남편인 여현국 대표가 각자 대표 체제로 있다.

엔지니어 출신인 이 대표는 창업 전 4년

10개월 가량을 뿌리기업에서 몸담았다.

그는 “경리직 외에 전문직 직원으로 첫 여자 직원이었다”며 “그러나 출장 문제 등 여자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경험을 많이 겪었고, 직접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업했다”고 말했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 2010년 법인 전환한 이 대표는 충북 청주시 오송의 한 창고에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10개월 정도 혼자 하다가 후배 6명을 데려왔고, 남편인 여현국 대표도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 역시 이 대표와 같은 엔지니어 출신이다. 2017년 1월 '이달의 기능 한국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가 프리션 샤프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비즈협회

인’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나이 마흔 두 살로 ‘최연소 기능 한국인’ 타이틀도 거머줬다.

이 대표는 리드탭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유진테크놀로지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리드탭은 2차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연결해 외부로 전기를 입출력하는 전극 단자로 2차전지 부품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진테크놀로지는 2014년 리드탭을 독자 개발했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일본의 스미토모가 전 세계 리드탭 시장의 80%를 차지했다”며 “현재 60% 이하로 떨어졌는데 유진테크놀로지의 리드탭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

지만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새 국내 영세한 리드탭 제조업체를 대기업들이 인수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진테크놀로지지만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기술력으로는 유진테크놀로지지만 국내 1%”라고 자부했다.

유진테크놀로지의 주 거래사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다. 그중 LG화학이 매출의 40% 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31%다. 지난해 매출액 244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96억 원을 기록한 유진테크놀로지는 올해 29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유진테크놀로지의 경쟁력이 다양한 분야의 2차전지 생산 서비스를 제조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가공을 하는 회사는 가공만, 장비만 하는 회사는 장비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진테크놀로지는 가공부터 리드탭까지 모든 부문을 이해하고 있다”며 “공정별 기술에 관한 이해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데이터 작업에 약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술이 뛰어난 데도 데이터화에 약해 이탈리아 등 외국 업체와 미팅 때 난감한 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에 집중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년부터 일제히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관한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남호 유진테크놀로지 이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컨설팅을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3000만 원”이라며 “힘든 업체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 정부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증기부 ‘자상한 기업’ 10호에 현대·기아차 선정

미래車 상생형 스마트공장 등 중소 협력사 지원 업무협약

현대·기아자동차가 10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증기부)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간 ‘미래차 시대 대응을 위한 자동차부품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 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이다. 증기부는 현대·기아자동차를 10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등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품업계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지원 의지에 따라 성사



박영선(기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공영운(오른쪽) 현대·기아차 사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됐다.

증기부, 현대·기아차, 자동차조합은 협약에 따라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대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협력사의 경쟁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는 ‘신규 투자 점검회’를 신설하고, 협력사가 신규 투자 시 과정투자 방지, 생산능력 효율화 등 투자 최적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또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미래차 부품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함께 미래차 포럼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증기부와 현대·기아차는 ‘미래차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유형을 신규 도입하고, 사업 전환(내연기관→미래차 부품)을 추진하거나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더불어 증기부는 내년 국립 공고 3개교(구미, 부산, 전북)에 ‘미래차 분야 방과 후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현대·기아차는 전문가를 파견해 교육을 지원한다.

박영선 증기부 장관은 “미래차는 IT, 이동통신, 서비스, 제조업 간 수평적 협업을 통해 자동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현대·기아차와 중소 부품업체 간 협력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또 다른 기회인 만큼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 사업 전환, R&D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SKT “웰컴 투 5G 코리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2곳에 ‘5GX 체험관’ 개장
5GX 익스피어리언스·AR동물원 등 5개 공간 마련

SK텔레콤이 대한민국 관문 인천국제공항에 ‘5GX 체험관(사진)’을 개장하고 ‘1등 5G’를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

SK텔레콤은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구역 동·서편 2곳에 ‘5GX 체험관’을 선보였다. 각 240m² 규모의 ‘5GX 체험관’은 △5GX 비전(Vision) △SKT 히스토리(History) △5GX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 △AR 동물원 △5GX AI 라이프(Life) 등 5개의 체험 공간과 ‘자이언트 캣’ 조형물이 있는 실외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체험 공간은 항공기 탑승을 앞둔 공항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5G·ICT 서비스, 바로(baro) 로밍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라운지 형태로 디자인됐다.

특히 이용객들은 대표 체험 공간 ‘5GX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에서 5G 가상세계 아바타를 만들어 미니게임, 영화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주얼 소셜월드’, 글로벌

인기 VR 리듬게임 ‘비트세이버’ 등 5G 초실감 미디어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실외 정원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월드몰 등에서 인증샷 열풍을 일으켰던 ‘자이언트 캣’ 조형물과 포토존이 설치됐다. 실외 정원에서 이용객들은 알파카, 웰시코기 등 귀여운 AR 미니동물 5종과 AR ‘자이언트 캣’ 등을 소환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5GX AI 라이프’에서는 AI스피커 누구(NUGU), OTT서비스 웨이브(Wavve), 뮤직 서비스 플로(FLO) 등을 마치 ‘스마트홈’에 온 것처럼 직접 제어하며 이용할 수 있다.

전진수 SK텔레콤 5GX 서비스사업본부장은 “5GX 체험관은 글로벌 5G 리더 SK텔레콤과 세계 1등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협업해 이룬 결실”이라며 “5GX 체험관 개장을 계기로 5G·AI·초실감 미디어 등 대한민국의 앞선 ICT 경쟁력을 글로벌로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ADT캡스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수상

‘무인경비’ 6년 연속 1위… ICT 융합 서비스 고도화 노력

보안전문기업 ADT캡스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무인경비서비스 부문 대상 브랜드에 6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포럼 주최로, 온·오프라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와 기대치를 기반으로 2020년을

이끌어갈 1위 브랜드를 선정하는 브랜드 어워드다. 올해는 온라인과 모바일, 일대일 유선 등을 통해 총 21만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브랜드가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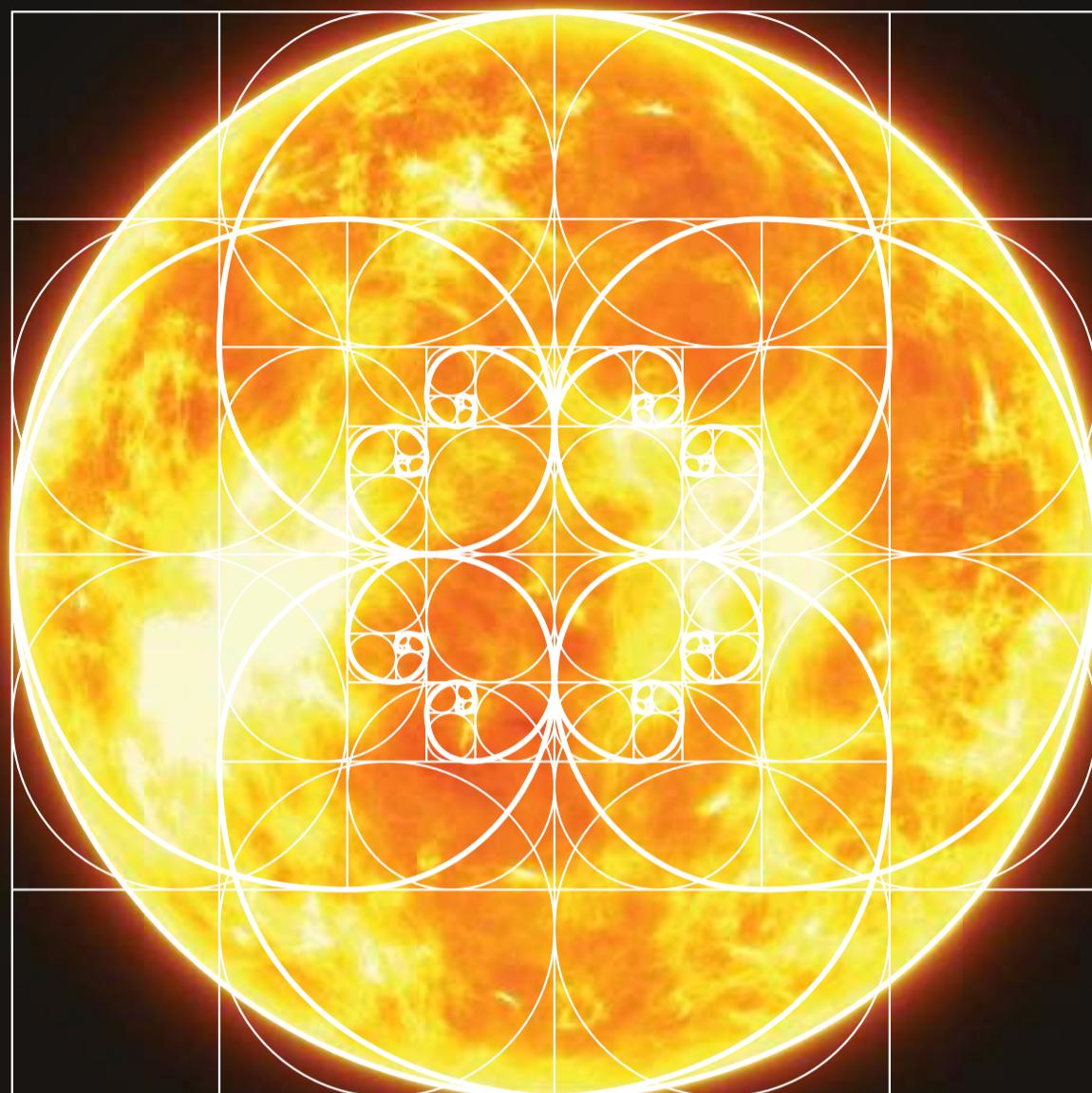
ADT캡스는 무인경비 서비스 부문 후보 브랜드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 6년 연속 무인경비 서비스 부문 만족도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안 전문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ADT캡스는 무인경비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빠른 출동과 빠른 A/S 등 보안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ICT 기술 발전에 발맞춰 한층 고도화된 보안 서비스들을 선보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SK텔레콤에 편입된 이후, 다양한 융합보안 서비스들을 출시했다. SK텔레콤과 함께 주차장 운영 솔루션 ‘T맵(T map) 주차’를, SK인포섹과 함께 정 보보안과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버가드 프로페셔널’도 선보였다.

이재훈 기자 yes@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K-바이오, 새해에도 글로벌 신약 R&D 불 밝힌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새해에도 신약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은 물론 유럽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시판허가를 비롯한 'K-바이오'의 성과를 보여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굵직한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글로벌 R&D가 펼쳐진다.

한미약품은 4분기 장기지속형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미국 시판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이 개발해 2012년 미국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바이오 신약이다.

스펙트럼은 올해 10월 2건의 임상 3상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롤론티스의 바이오의약품 시판허가(BLA)를 신청했다. 전 세계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6%씩 성장해 2025년에는 125억 달러(14조 57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사용 항암제를 경구용으로 전환하는 한미약품의 플랫폼기술 '오라스커버리'가 적용된 항암신약 '오락솔'은 내년 1분기 FDA 신약허가신청(NDA)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트너사 아테네스는 오락솔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피클리타셀 정맥주사 제형 대비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객관적 반응률(ORR)의 유의성을 확인했다.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2020년 글로벌 R&D 전망

※ 출처: 각사

기업	프로젝트	적용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미약품	롤론티스	호중구감소증				미국 시판허가
	오락솔	전이성유방암	FDA 허가신청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비소세포폐암	병용투여 글로벌 임상 2상 개시		단독투여 글로벌 임상 3상 확대	
	현터라제	현터증후군	중국 시판허가			
GC녹십자	그린진F	혈우병			중국 시판허가	
	MIG(10%)	선천성면역결핍증			FDA 허가신청	
한울바이오파마	HL036	안구건조증	임상 3상 토탈인 발표			
셀트리온	램시마SC	자가면역질환	유럽 출시	IBD 적응증 추가		

한미약품 롤론티스 美시판허가·오락솔 신약허가신청 임박

유한양행 레이저티닙, 연초 글로벌 임상·조건부 허가 도전

GC녹십자 희소질환 치료제 2종, 시장 잠재력 큰 中 진출

제티닙'의 글로벌 임상 개발에 속도를 낸다. 레이저티닙을 기술도입한 얀센은 이중 항체 병용투여 임상 2상을 상반기 중 개시 할 예정이다. 동물실험에서는 기존 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내성이 발생하는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 과발현 암 세포종에서 뛰어난 종양 크기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개발에 성공하면 혁신신약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레이저티닙 단독투여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한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한다.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적용증이 확대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타그리소를 정조준하는 전략이다. 타그리소 시장은 2024년 58억 달러(6조 77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레이저티닙의 단독투여 임상이 성공하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다.

특히 레이저티닙은 국내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연초 조건부 허가에 도전한다. 차질없이 진행되면 2020년 내 조건부 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GC녹십자는 중국을 공략한다. 희소질환 치료제 '현터라제'와 '그린진에프'가 상반기와 하반기 시판허가를 앞두고 있다. 현터라제는 GC녹십자가 2012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현터증후군 치료제다. 중국에서는 사이어의 '엘라프라제' 보다 먼저 시판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터증후군은 IDS(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소질환이다.

그린진에프는 3세대 유전자재조합 방식 A형 혈우병 치료제다. GC녹십자는 2016년 미국 임상 3상을 중단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 진출에 주력했다.

혈액제제 아이글로불린(IVIG)은 10% 제품으로 하반기 미국 허가에 재도전한다. 미국 IVIG 시장에서 10% 제품은 4조 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제 '램시마SC'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한다.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은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정맥주사(IV)에서 피하주사(SC)로 바꿔 편의성을 높

인 바이오베타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달 류머티즘 관절염(RA) 적응증에 대해 판매를 허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램시마SC를 유럽 각 국가에 차례로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램시마SC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4개의 법인 및 지점을 잇는 자체 직판망을 통해 판매된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내년 중반을 목표로 염증성장질환(IBD)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전체에 대한 승인을 추진한다. 적응증을 추가하면 약 10조 원 규모의 유럽 TNF-α 억제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달 중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의 임상 3상 토탈인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던 한울바이오파마는 데이터 검증을 위해 시기를 1월로 늦췄다. HL036은 대웅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바이오 신약이다.

안구건조증 시장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4조 원 규모다. 연평균 7%씩 시장 규모가 성장해 2027년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효과가 뛰어난 치료제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노바티스는 다케다의 '자이드라'를 53억 달러(6조 1800억 원)에 사들였다. 업계는 HL036이 임상 3상에서 충분한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면 더욱 높은 가치로 기술수출 가능성이 부각할 것이라 보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에이치엘비 자회사 엘레바 'JP모건 콘퍼런스' 참가

에이치엘비가 내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0(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2020)'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1983년을 시작으로 매년 글로벌 빅파마, 의료서비스 회사, 투자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콘퍼런스다.

에이치엘비에서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의 알렉스 김(Alex Kim) 대표와 케이트 맥킨리(Kate McKinley)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참석해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현재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3상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NDA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진우 에이치엘비 이사는 "현재 많은 미팅 요청이 있는 상황이며, 타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가능성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노은희 기자 sell215@

씨제이헬스케어-스탠다임 AI 활용 항암신약 공동개발

씨제이헬스케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암신약 개발에 나선다.

씨제이헬스케어는 AI 기반 신약개발 전문기업 스탠다임과 항암신약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탠다임은 AI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신약의 새로운 화합물 구조를 찾아내고, 씨제이헬스케어가 물질 합성 및 평가를 진행해 2021년까지 후보물질을 도출할 예정이다.

스탠다임은 AI 기반 선도 물질 최적화 협력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나노 베지클 생산기술, 난치질환 치료 신기원 기대"

바이오 줌인

배신규 앰디문 대표

"전 세계 최초 압출 방식의 세포 유래 베지클(Cell Derived Vesicles, CDV) 제조기술에 대한 제조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은 기술 수출, IPO 추진 등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에 한발 더 다가가는 성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18일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앰디문 본사에서 만난 배신규(사진) 대표는 신년 비전에 대해 밝히며 퀸텀점프를 위한 발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엑소좀은 세포로부터 유래된 생체 내 신호전달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 이는 특정 세포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천연 상태에서 획득되는 엑소좀은 양이 한정돼 있고 획득 대상 세포 종류도 제한적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것이 직접 압출 방식에 의해 나노 크기의 베지클(CDV)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앰디문의 플랫폼 기술인 '바이오 드론'이다.

배 대표는 항암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던 중 엑소좀 기술에 주목, 2015년 앰디문을 창업했다. 이 플랫폼



독자적 CDV 제조 플랫폼
국내외서 오픈이노베이션
다양한 질환에 확장 적용

은 원천세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대비 약 100배 이상의 CDV를 얻을 수 있어 수많은 의약품과 결합이 가능해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같은 독자적 플랫폼 활용 확대를 위해 PIDO(Platform Inside Development Outside)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외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PIDO는 앰디문(내부)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질환별 국내외 전문기업·기관들과 오픈이노베이션(외부)을 통해 치료제 개발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모델이다.

그는 "기존 치료제 개발 기술들과 달리 다양한 치료제 개발로 확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앰디문 플랫폼 기술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앰디문은 줄기세포 유래 CDV 치료제(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골관절염(OA)·뇌질환)와 면역세포 유래 CDV 치료제 등 4개의 파이프라인을 보

이에 회사는 다양한 난치성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CDV의 균일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제조 공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배 대표는 "내년 상반기 공정이 마무리되면 여러 질환 치료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지니스 다각화를 위해 미국에 바이오드론 테라퓨틱스(Biodrone Therapeutics Inc.)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앰디문은 줄기세포 유래 CDV 치료제(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골관절염(OA)·뇌질환)와 면역세포 유래 CDV 치료제 등 4개의 파이프라인을 보

유 중이다. 줄기세포 유래 CDV는 기존 세포치료제 단점으로 꼽혔던 세포증식, 혈전생성 등의 우려가 없어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최근에는 치료제가 없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줄기세포 CDV를 치료제로 적용하는 국내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거나 이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배 대표는 내년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성과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그는 "내년에는 기술수출 및 상장 준비 등의 이슈와 함께 최근 유치된 107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연구개발이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을 글로벌 진출의 전진 기지로 삼고 사업 다각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상에 없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CDV 기술 활용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공동연구로 엑소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리딩 컴퍼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창업 5년 차를 맞는 앰디문은 혁신, 성장, 나눔의 핵심가치를 전 직원이 공유하며 '세상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는 꿈을 키우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215@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식약처, 유럽 규제기관과 의약품 정보 교류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분야 국제 협력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식약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스위스·프랑스 정부기관을 비롯한 유럽 규제기관과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스위스와 맺는 상호신뢰협정으로 식약처와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간

라며 "이번 체결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및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 맺는 비밀정보 교류 협약은 규제정보를 비롯해 의약품 심사·평가정보 등 상호 보유한 기밀정보를 교환한다.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국내

의약품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선제적인 제약사들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증시 훈풍 부는데… 화학주만 ‘찬바람’

美·中 무역분쟁 여파 수요 감소
화학업종 저마진 구조 악화
증권사, 4Q 영업익 전망치 하향

도저럼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어온에도 화학 업종에 대한 시장 전망은 멍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침체로 화학제품 수요가 감소한 데다 내년 막대한 공급이 이어져 마진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주가 흐름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체의 4분기 실적은 기준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LG화학, 롯데케

국내 주요 화학업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단위: 억 원)

구분	영업이익 전망치			전분기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평균	실적	평균 대비 변동률
LG화학	956	718	837	3803	-77.99%
롯데케미칼	2380	1055	1717.5	3146	-45.41%
금호석유화학	626	345	485.5	1389	-65.05%

※출처: 한국투자증권 및 미래에셋대우

미칼, 금호석유화학 등의 4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956억 원, 2380억 원, 626억 원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 기준 컨센서스 대비 LG화학은 65.2%, 롯데케미칼은 9.4%, 금호석유화학은 3.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LG화학 4분기 영업이익(718억 원)이 와이즈에프엔(Wisefn)

컨센서스보다 62.2%, 롯데케미칼(1055억 원)은 58.8%, 금호석유(345억 원)는 43.3% 대폭 밑돌 것으로 이날 추산했다.

화학 업종의 저마진 구조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증권사들도 전망치를 대폭 낮춰 조정한 것이다. 실제 석유화학 시황을 대표하는 에틸렌 스프레드(제품 판매기와

원재료 가격 차이)는 4분기 누적평균기가 톤당 193달러로 전분기 평균보다 43% 감소했다. 일반적인 손익분기점인 250달러를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이도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에틸렌 외에도 주요 범용 석유화학 제품의 시황은 대부분 역사적 저점 또는 손익분기점을 밑돌 정도로 악화했다”며 “주요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약세”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급도 대폭 늘어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가동 예정인 신규 설비 규모가 에틸렌 기준 800만 톤으로 연간 세계 수요 증가분의 2배가량”이라며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회복의 폭에 따라 화학 시황은 탄력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에틸렌 및 에틸렌 유도체 비중이 높은 경우 당분

간 공급 충격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대폭 내려간 화학 업종 주가를 저점으로 보기에 아직 선부르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화학 업종은 ‘12개월 미래 주가수익비율’(12M fwd PER)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아야 한다”며 “통령과 달리 PER에서 주가가 오르고 저PER에서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PER의 분모로 쓰이는 추정 순이익을 애널리스트들이 시황이 좋을 때 과하게 잡아 PER가 낮아지고, 반대로 시황이 안 좋을 때는 기대감이 사라진 나머지 과하게 낮게 잡아 PER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공모펀드 시장 위축… 설정액 36% 감소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영향
올해 신규 펀드 규모 9.3兆
해지는 전년 대비 12% 늘어
“금융당국, 활성화 방안 시급”

증시 부진과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공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출시된 공모펀드는 총 4180개로 연초(4259개)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설정된 펀드 규모는 9조3277억 원으로 전년 동기(14조 5528억 원)와 비교하면 35.90% 줄었다. 무역협상 장기화와 경기침체, 반도체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식형 공모 설정액이 73조 2045억 원으로 1월보다 0.43% 줄었다. 이를 제외한 채권형 공모펀드는 38조4829억 원에서 46조2284억 원으로

2019년 공모펀드 현황

구분	현황		
	12월	1월	증감률
주식형	732,045	735,248	-0.44%
파생형	204,823	194,154	5.21%
부동산	32,271	23,290	27.83%
단기금융	1,003,740	707,166	29.55%

※출처: 금융투자협회

20.12% 증가했고 △단기금융(41.93%) △부동산(38.56%) △파생형(5.49%) 펀드는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황 한국펀드평가 연구원은 18일 “올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및 연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공모와 사모펀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며 “부동산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모펀드 해지 규모도 크게 늘었다. 16일 기준 1조8866억 원 규모의 펀드

가 해지되며 자금이 유출됐다. 연초(1조6876억 원)와 비교하면 해지 규모가 11.79% 늘어난 셈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었다. 세계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과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 미국이나 유럽 증시는 20% 이상 상승했는데 유독 한국만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서 펀드로 돈 벌었다는 사람을 거의 찾을 수 없는데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눈을 넓혀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등 여러 흥보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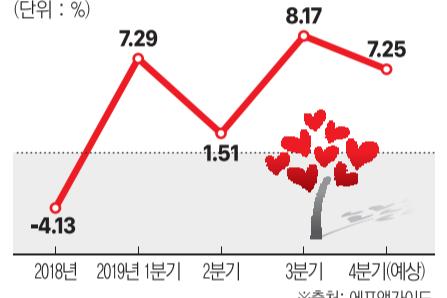
〈자기자본이익률〉

인터파크 ‘ROE’ 회복 조짐

공연 몰려 계절적 성수기

4분기 ROE 7.25 예상

인터파크 ROE 추이



지난해 마이너스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록했던 인터파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정보업체 애플리케이트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해 -4.13%의 ROE를 기록했다. ROE는 투자자본 대비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기순손익이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ROE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을 비롯해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된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7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ROE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금껏 분기별 마이너스는 있었지만 최종적인 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코스닥 유통업종(-0.96%) 평균과 비교해도 부진의 폭이 커졌다.

올 들어선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며 ROE 역시 회복세다. 1분기 7.29까지 올랐던 ROE는 2분기 주춤하며 1점대까지 떨어졌지만 3분기 현재 8.17까지 오른 상황이다. 4분기 예상 ROE는 7.25다.

최근 한 달 이내에 인터파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종합한 결과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1억 원, 142억 원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264.77% 증가할 수준이며, 당기순이익은 상장 이래 가장 좋았던 2015년(166억 원) 다음으로 좋은 수치다.

다만 암울하긴 이르다. 지난해에도 인터파크는 3분기 ROE가 9.78이었지만 4분기 47억 원의 적자 속에 결과가 뒤바뀌었다. 당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여럿 있었지만 실제로는 여행 업황 부진을 직격으로 맞으며 부진했다.

올 들어서도 영업환경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일본과 홍콩 여행 수요의 부진 탓에 투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지난해보다 공연 사업과 도서 사업 등 타부문에서의 실적 성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예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일본과 홍콩 중심의 여행 수요 감소가 거래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초에 예상했던 3분기 여행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영업환경이 개선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엔터 사업은 4분기 다수 공연이 집중되는 시기로 계절적 성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서 사업 역시 판매 채널 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o@

KH바텍 ‘폴더블폰 시대’ 재도약할까

폴더피처폰 부품 ‘힌지’로 호황
스마트폰 출시돼 매출 떨어져
3년 적자… 재무 건전성은 유지
증권가 “내년엔 흑자전환 예상”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힌지’ 하나로 시대를 풍미했던 KH바텍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재도약할지 이목이 쏠린다.

KH바텍은 통신 전자기기 등의 부품제조와 판매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됐으며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요 제품은 알루미늄(브라켓, 스마트폰 소제품) 46%, 기타 IT제품 및 상품(힌지, FPCB) 25%, 아연 내·외장품 10% 등이다.

KH바텍은 과거 플립형, 폴더형, 슬라이드 형태 휴대폰에 힌지 부품이 대거 사용되면서 급성장했다. 특히 폴더피처폰이 흥행했을 당시 노키아에 힌지를 납품하며 전성기를 맞이했다. KH바텍은 노키아 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할 만큼 힌지 관련 금형제조에서는 기술력과 레코드를 확보하고 있다. 실제 KH바텍이 낸 힌지 관

교해 소폭 늘었다. 다만 유보율이 2800% 대에서 180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KH바텍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타난 것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힌지다. 특히 과거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사들이 대거 이탈해 당분간 KH바텍의 독점적인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힌지 사업을 하던 셀라인은 실적 악화로 이화전기에 피인수됐고 모빌링크와 알티전자는 각각 2009년 2012년에 상장 폐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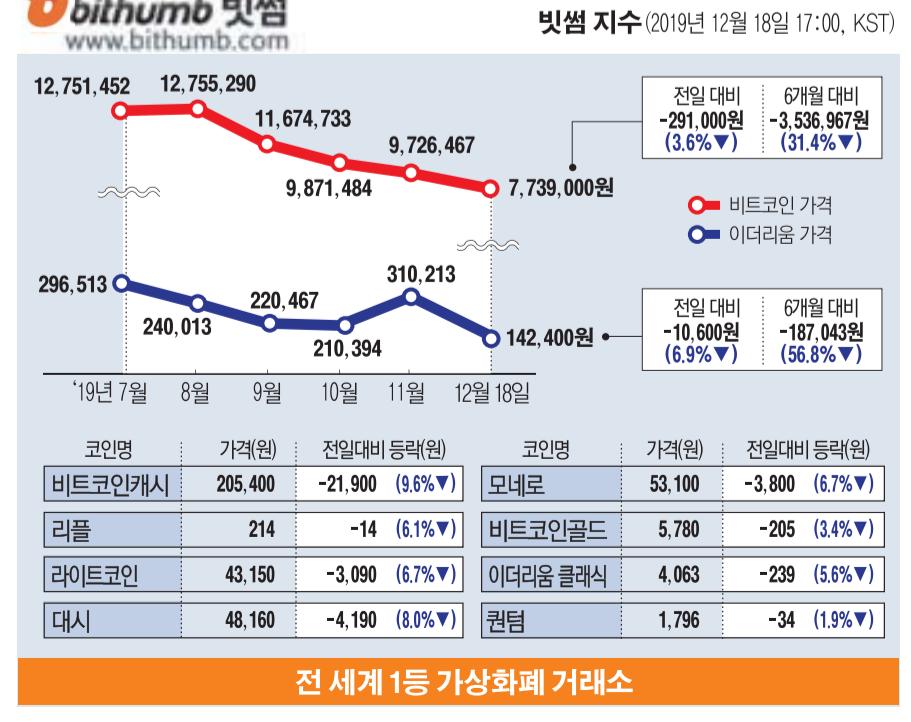
이에 따라 증권가는 KH바텍이 올해 영업손실 고리표를 떼어내고 내년부터 흑자 폭을 키울 것으로 예상한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KH바텍의 올해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2129억 원, 57억 원, 내년에는 각각 3430억 원, 462억 원, 2021년에는 5708억 원, 837억 원이다.

교보증권 최보영 연구원은 “향후 폴더블의 형태는 인플딩, 아웃플딩, 크램센 방식을 넘어 Z폴딩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것으로 보여 3~4개 이상의 힌지가 필요하게 될 전망으로 중장기적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KH바텍 실적 추이



※출처: 금융투자협회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모든 은행이 한번에 열리는 타행 계좌 조회부터 이체까지 한번에! 우리WON 오픈뱅킹

GRAND OPEN
우리WON 오픈뱅킹

기간: 2019년 12월 16일 ~ 2020년 2월 23일 | 발표: 2020년 3월 4일

EVENT 1

오픈뱅킹 열고
맥북프로 득템하자!

[맥북프로 10명, 스티커스 아메리카노 1만 명, 피리바게트 5천원 1만 명 등]

EVENT 2

오픈뱅킹으로 이체하고
국민관광상품권 받자!

총 100명(매주 10명) 매주 월~일요일 첫 이체금액 기준(단, 최대 100만원)

EVENT 3

오픈뱅킹 예/적금 가입하고
국민관광상품권 받자!

총 200명(매주 20명) 받으실 만기 이자만금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우리WON뱅킹
다운로드하기

▶ 이벤트는 은행 사정상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및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5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우리은행은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대출을 조건으로 금전 및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9.12.13 출판감시인-2498 심의필 (유효기간: 2020.2.23)

청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서울시, 청년-기성세대 실태조사 취업 성공요소로 ‘학벌’ 끓아

서울에 사는 청년 1만 명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꼽았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의 사회·경제적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비교를 통해 본 서울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는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전국 최초로 착수한다”며 “사회·경제적 기회의 차이와 같은 청년-기성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28.3%)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원하는 주거



에서 사는 것’(28.2%)이 뒤를 이었다.

청년들은 취업 성공 요소에 대해 ‘학력 또는 명성 있는 대학 졸업’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다. ‘업무 관련 자격증’(23.4%), ‘인턴, 아르바이트 등 직무 경험’(13.9%) 등이 뒤를 이었다.

본인이 인지하는 부모의 경제 계층에 따라 급여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 계층을 높다고 인지할수록 평균급여가 더 높았다.

부모의 경제계층을 상층, 하층으로

인식하는 청년 간 현재 급여는 약 44만 원 차이를 보였다. 서울청년들의 평균 첫 직장 급여와 현재 급여는 각각 169만7000원, 271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결혼과 출산에서는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청년 세대는 5점 만점에 각각 3.68점과 3.58점을 주었지만, 기성세대는 2.79점과 2.74점을 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 전반에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세대균형지표 개발에 착수한다”며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미래세대 권리 보호를 위한 세대 간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설경진 기자 skj78@

‘강만수 명의 후원금’ 고재호 벌금형 확정

〈前 대우조선 사장〉

대법 “대표 선임 사례… 뇌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내가 주는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 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례와 항후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 서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고 전 사장을 기소했다.

1·2심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이던 피고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부탁하는 뜻에서 강만수가 지정한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산업은행장 직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검찰이 국무총리비서실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 수사관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

‘김기현 첩보’ 추적 檢, 총리실 압수수색

비리 의혹 가공 정황 포착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문 사무관은 국무총리실 민정실 소속으로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제보한 문건이 청

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지는 등 가공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인 문 사무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고 의심한다. 5일 검찰은 문 사무관을 한 차례 불러 제보 접수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과정을 개불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작년 6·13 지방 선거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원을 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채용비리’ 조용병 檢, 징역 3년 구형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윤승우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자녀 성비를 3대 1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용 기자 deep@



“채식주의자, 읽는 순간 해외서 히트 확신”

인터뷰

한국문학 번역가 ‘윤선미’

“2012년 아르헨티나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서 내놨어요. 이후 스페인 출판사 라파에서 저작권을 사오게 된 거고요. 작가가 맨부커상 받기 한참 전의 일들이죠.”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출판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된 윤선미 씨는 한강의 소설을 처음 해외에 알리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김기택, 백가흠, 백무산, 이승우, 윤흥길, 한강 등 한국의 작가들이 쓴 시와 소설을 스페인어로 옮겨왔다. ‘2019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을 4시간 앞둔 그를 16일 서울 중국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났다.

윤 씨가 처음 한강의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한국 문학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읽는 순간 한강 소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라 직감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좋아할 것이라 확신이 100% 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작품에 매료됐어요. 서양에서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아르헨티나에 책을 내놓은 후 한강 선생님이 도서전에 왔는데, 1000부가 넘게 팔려서 신문에도 난 거예요. 행사장은 사람들로 꽉 찼고, 상당히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그는 한강의 책으로 번역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채식주의자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영광스럽다고 귀띔했다.

“상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으니 부끄럽더라고요. 마음도 무겁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강 작가의 ‘흔’을 번역하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엔 제가 번역해서 출판사를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젠 출판사에서 한강이나 한국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를 번역해 ‘2019 한국문학번역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윤선미 씨가 1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문학번역원

2012년 아르헨티나서 첫 번역 도서전서 1000부 이상 팔리기도

예전엔 韓소설 들고 출간 발표 이젠 출판사가 소설 번역 제안

“소년이 온다” 번역으로 장관상 한강 작가 소설로 상 받아 영광”

작가들의 소설을 번역하자고 제안하기도 해요. 5년 전과 10년 전이 다른 만큼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윤 씨와의 일문일답.

- 15일 아르헨티나엔 왜 다녀왔나.

“최근 한국 최초 페미니스트인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의 작품을 번역해서 출판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 그 작가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독자들이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자리였다.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알려줬는데 반응이 좋았다.”

- 번역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있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할 거 같다.

“작품 선정을 가장 신경쓴다. 그 나라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생각해야 한다. 한강 작가의 소설은 번역하기 힘들다.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가슴을 울리는 주제들을 다루기 때

문에 울면서 번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문학의 특징인 여백의 미학 때문에 번역이 더 힘든 거 같다.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양화는 사진처럼 모든 정보가 그림에 들어가는 반면 동양화는 보는 사람이 그림을 완성시켜야 한다. 문학도 독자가 의미를 완성해야 한다. 그대로 번역하면 문장이 딱딱하고, 서양 독자에겐 초등학생이 쓴 글처럼 보일 수 있다. 여백만 있고 설명이 없으면 안 되니, 번역할 때 많은 경우 문장들을 이어주거나 추가 설명도 해야 한다. 그래서 번역기는 그냥 말만 읽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직업이다.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

-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번역됐나.

“소년이 온다’를 외국어로 번역하면 어느 나라 말로도 이상하다. 소년이 온다는데, 어떤 소년이 온다는 거고 왜 오는 건지. 내용하고 매치도 잘 안 된다. 독자는 잘 캐치 못 할 수도 있다. 나는 ‘촛불’이나 ‘불꽃’도 생각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많을 거 같아서다. 작가도 좋다고 했지만, 스페인 편집장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싫다고 했다. 그래서 영어 버전의 이름인 ‘휴먼 엑스’를 스페인어로 바꿔 나갔다. 이미 알려진 제목이니 독자들이 연결하기 수월하기도 했다.”

- 어떤 점이 해외에 통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 작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 문제는 소설 속에 항상 나온다. 일전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그쪽에서도 ‘한국 작가들은 페미니스트인가’라고 물더라. 여성에게 여성 문제를 다룰 뿐, 한국 사회에 여성으로 살면서 안 다룰 수 없어서라는 식의 설명을 해줬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인정하지 않냐고 한다.(웃음) 한강 소설이 페미니스트 주제라서 한 건 아니다. 독특하지 않나. 어느 여성이나 읽으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성 독자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나 공감하지 못하더라. 채식주의자 읽고 나서 ‘정신 나간 여자 이야기’라고 말하고 끝이었다.”

김소희 기자 ksh@

새로 나온 책

빅 피쉬

데니얼 윌리스 지음/
장영희 역음/동아시
아 펴냄/1만2000원
세일즈맨으로 밖
으로 떠돌다가 죽음
을 앞두고 집으로 돌
아온 아버지 에드어



드 블룸. 아버지는 거인을 정복하고, 아름다운 인어와 사귀었으며, 진실을 깨뚫어 보는 유리 눈의 노파를 만나고, 흥수를 잠재우고, 전장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었다. 집 밖에서는 그런 대단한 모험을 하는 영웅이지만 집에만 오면 웬지 왜소하고 낯설어 보이는 아버지였다.

아들 윌리엄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준 이야기를 근거로 아버지의 삶을 신화처럼 재구성한다. 윌리엄은 이야기들의 진실성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들을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그것은 아버지의 세계를 이해하는 작은 창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위대함, 그리고 실패를 이해한다.

리더의 용기

브레네 브라운 지음/
강주현 역음/갤리온
펴냄/1만8000원

최근 실리콘밸리의 CEO들 사이에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에게 경영의 고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주인공은 TED 강연 5700만 조회 수를 달성하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본 TED 강연 TOP5’의 기록을 세운 미국 최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다.

7년 동안 스타트업 기업부터 포춘 50대 기업까지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40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리더십의 비밀’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탄생한 이 책은 53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2019 CEO 가 꼭 읽어야 할 책’에 선정됐다.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 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구독 문의 (02) 799-2680

“상한제 전 막차 타자” 더 뜨거워진 분양시장

수도권 31곳 2만7755가구… 작년보다 2배 늘어

‘비수기’가 무색하게 올겨울 분양시장이 한껏 달아올랐다. 정부의 초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이례적으로 연말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1곳 2만 7755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2301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약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미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을 넘어섰다. 강남권에서 인정적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70점이 넘어야 할 판이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청약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강남은 물론 강북에서도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연말 분양시장이 달아오른 것은 정부 규제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이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내년 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축 아파트를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연말 분양 물량이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모습”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로또 분양 단지’를 잡으려는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올해 겨울 신규 분양 물량을 공략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구 최고층 단지… 도시정비사업 ‘호재’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현대건설이 대구 중구 태평로에 짓는 주상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대구역’을 분양한다. 13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데 이어 18~19일 이틀간 아파트 1, 2순위 청약 및 오피스텔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6일로 예정됐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5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6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12㎡짜리 803가구로 이뤄졌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172가구, 84㎡B 89가구, 84㎡C 374가구, 112㎡ 168가구다.

오피스텔은 150실(전용면적 43~46㎡) 규모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43㎡A 50실, 43㎡B 50실, 46㎡C 50실이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이 들어서는 대구 중구 일

대에선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만 10여 곳에 달한다. 이 중 힐스테이트 대구역은 대구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선다. 지상 최고 49층으로 중구에서 최고층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미래 가치도 뛰어나다. 단지 앞에 위치한 대구역에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지날 예정이다. 4월 착공한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의 경부선 철도를 활용해 운행할 예정으로 경북 구미시에서 경산시까지 이어진다.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에는 현대건설만의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대부분의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에 신경 썼다. 아파트는 4베이 위주 평면설계에 대형 드레스룸, 파우더룸, 펜트리(일부타입)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오피스텔의 경우 2룸 아파트 수준의 공간을 갖춰 한층 실속 있는 소형 주거공간으로 설계된다.



3호선 역·숲세권, 실내 미세먼지까지 ‘싹’

대림산업

e편한세상 흥제 가든플라자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흥제 가든플라자’ 아파트 견본주택을 20일 개관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흥제 가든플라자는 흥은1구역 재건축 단지로 지하 4층~지상 28층, 6개동, 총 48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47가구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신사동에 마련돼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12월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진상가, 흥제시장 등 흥제역 상권과 이마트(은평점), NC백화점(불광점) 등 편의시설이 있다. 흥제초·흥은중·인왕중·상명사 대부속여고·상명대·명지대·서울여자간호대 등 여려 학교도 인근에 있다.

e편한세상 흥제 가든플라자는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철 3호

선 흥제역이 강북횡단선에 포함돼 환승역이 될 예정이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은 완급행 열차 운행이 가능한 25.72km의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흥제 가든플라자에 미세먼지 저감 특화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기청정형 환기시스템이 실내 환경 통합센서와 연동돼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실내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 자동으로 환기시스템이 가동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및 샤워시설을 계획 중이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이달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해당지역 1순위, 27일 기타지역 1순위, 30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년 1월 6일이고,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한화건설

포레나 거제 장평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일대에 짓는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이 단지는 한화건설의 새 브랜드를 적용해달라는 기존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이 잇따라면서 ‘포레나 거제 장평’으로 새롭게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9개동 817가구 규모로, 이 중 2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다.

단지 근처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있다. 도보로 조선소를 갈 수 있다. 거제대로·14번 국도·계룡로·거제중앙로 등도 가깝다. 고현버스터미널을 비롯해 20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시내버스 정류장도 인근에 있다. 최근에는 김천부터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선)의 조기 착공이 점쳐지고 있다.

장평초와 양지초를 비롯해 여러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고, 디큐브백화점과 홈플러스, 장평주민센터, 법원 등의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인 ‘거제 빅 아일랜드’가 조성되고 나면 생활 인프라는 더 개선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3.3㎡당 860만~960만 원대다.

판상형 및 개방형의 남향 위주 구조가 적용됐고, 모든 타입에 파우더룸이 설계됐다. 일부 타입은 맞통풍 구조로 주방과 밭코니가 연결되고, ‘ㄷ자형’ 주방이 적용된다. 중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제와 300mm의 세대 간 벽체가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수목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카사 파크, 레이디스 가든, 티 가든 등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장평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포레나 거제 장평은 좋은 상품성과 합리적인 분양가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새 브랜드에 걸맞게 이전과 다른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안양예술공원 인접 '숲세권' 아파트

GS건설

안양 아르테 자이

GS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아르테 자이'를 분양 중이다. 최근 세 자리 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마감한 아르테 자이는 23일부터 26일 까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아르테 자이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 343가구 모집에 1만1113명이 몰려 32.4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76㎡A 타입에서 나왔다. 6가구 모집에 915 건이 접수돼 15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르테 자이는 안양예술공원 입구 주변 지구 재개발 단지로 '아르테(Arte)'는 스페인어로

예술을 뜻한다. 인근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의 경우 전통사찰과 문화재, 자연이 어우러진 서울 인접 휴양지로 연간 60만여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책과 운동은 물론 관악산, 삼성산과 연결돼 등산도 즐길 수 있다.

아르테 자이는 총 1021가구의 대단지로 지하 3층, 지상 최고 28층 12개 동으로 이뤄졌다. 도로에 접한 4개 동은 저층 부분에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76㎡ 545가구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3가구 △49㎡ 40가구 △59㎡ 340가구

△63㎡ 121가구 △76㎡ 21가구로 구성됐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아르테 자이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안양예술공원까지 인접해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데다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의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고객의 기대가 큰 만큼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아르테 자이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2년간 연 5% 임대수익 보장... 바다 조망

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상업시설

대우건설이 부산에 조성하는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상가는 전면 상업시설 전체가 바다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2층 매장 중 테라스가 비치된 상가는 야외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상가는 빠른 정착을 위해 임대수익 보장제를 실시한다. 상가 분양계약자는 2년 동안 사업시행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연 5%의 확정수익을 지급받는다. 3년차가 되면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임대대행사의 임대 케어 서비스를 받는다.

임대 케어 서비스는 임대 전문가로 구성된 임대대행사가 상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유치와 준공 후 운영 관리까지 맡는 서비스다. 분양계약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덜

고, 다양한 상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 상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13개 기관, 2600여 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초 해양 전문 혁신도시인 동삼혁신도시의 배후단지가 될 것"이라며 "혁신도시 근무자들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교직원 수요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846가구와 263실의 호텔 고정 수요도 갖추고 있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지상 49층 아파트 4개 동, 846가구, 호텔 및 레지던스형 호텔 1개 동 263실로 이뤄졌다. 상업시설은 1~2층에 들어서며 총 112실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 영도구 일대에서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4월 태종대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태종대권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분 상업시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입점 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3.3㎡당 800만~860만 원... 후분양 아파트

부영건설

창원 월영 마린 애시양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들어서는 '마린 애시양' 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2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4일과 26일 각각 1, 2 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 정당 계약일은 13~15일이다. 16일엔 선착순으로 계약을 받는다.

지하 1층~지상 최고 31층, 38개 동이 들어서는 마린 애시양은 4398가구가 입주한다. 전용면적별로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가 공급된다.

마린 애시양은 단지 주변 환경도 좋다. 단지 내에 부용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들어서고, 해운중학교 단지와 마주보고 있다. 마산 합포 스포츠센터와 합포도서관, 롯데시네마 등 생활·문화시설과도 가깝다. 마린 애시양의 견본 주택은 단지 안에 마련됐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내부 환경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가구마다 스마트 오븐 렌지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2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원패스 카드를 통해 공동현관 출입이나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확인 등도 손쉽게 할 수 있다.

마린 애시양은 단지 주변 환경도 좋다. 단지 내에 부용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들어서고, 해운중학교 단지와 마주보고 있다. 마산 합포 스포츠센터와 합포도서관, 롯데시네마 등 생활·문화시설과도 가깝다. 마린 애시양의 견본 주택은 단지 안에 마련됐다.



당진 첫 아이파크... 중소형도 4베이 구조

HDC현대산업개발

당진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당진시에서 '당진 아이파크' 426가구를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당진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다. 당진시 도심권에서도 최중심에 위치한 만큼 아파트 입주자들은 시청을 비롯한 경찰서, 지방법원, 교육지정, 문예의 전당 등 주요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군도 뛰어나다. 당진시 내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계성초와 원당중, 호서중, 호서고가 도보권에 있다. 단지 배후에는 33만 3859㎡ 규모의 계립공원이 2020년부터 2014년 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당진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 59~84㎡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186가구 △74㎡ 40가구 △84㎡

A 194가구 △84㎡ 6가구로 전 주택형이 중소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최상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는 특화설계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당진 아이파크는 중소형 주택형으로 이뤄졌는데도 전 가구가 4베이로 지어진다. 전용 59㎡ 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안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주방 팬트리까지 갖춘다. 전용 74㎡ 타입은 코너형 판상형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로 이뤄진다. 전용 84㎡ 타입도 4베이 판상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된다. 전용 84㎡ 타입은 복층형 구조로 1층은 4베이에 방 3개, 욕실 2개가 들어선다. 상층부는 거실과 방 1개, 욕실 1개, 테라스로 이뤄져 독립 기구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첫 론칭하는 단지인 만큼 특화설계를 비롯한 높은 상품성을 갖춘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여기에 입지 여건이 뛰어나고 학군을 비롯해 교통·상업·문화 등 생활 인프라 이용까지 쉬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객감사 이벤트! 마지막 찬스!! 반값 할인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건강한 겨울을 기원하는 프리미엄 할인 행사!!!



가정용

① 제품명 뉴아쿠아픽(좌측)
모델명 AQ-300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제품크기 150x90x210mm
액동수류 2,200회/분



휴대용

①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모델명 AQ-220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제품크기 70x100x300mm
제품무게 440g(본체 260g, 충전기 180g)
액동수류 1,400회/분

▲ 휴대용(무접점 충전 거치대 포함)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아쿠아픽 제품만의 강력한 맥동수류

아쿠아픽의 강력하고 뛰어난 맥동수류(탁탁 끊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잇몸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



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하나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4개의 제트팁)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 인전하고 편리해진 무접점 충전방식
- 24시간 원충 시 최대 2주 사용 가능
- 0.6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60g)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 인체공학적 제트팁 설계
- 세가지 세정모드
 - NORMAL 일반적인 세정모드
 -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정모드
 - PULSE 잇몸 마사지 전용 모드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한국 미용성형기술 ‘K메디컬’ 열풍 일으킬 것”

베트남판 ‘렛미인’ 공동MC 맡은 정선미 제이앤메디홀딩스 대표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20년 경력, 뷰티크리에이터 자산
유튜브 방송도…“성형 장려 아닌 좋은 수술 도움주려는 것”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성형이다. 한국의 미용성형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덕분이다. 그 뛰어난 기술을 더욱 넓은 세계에 알리는 게 꿈이다.”

최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정선미(45·사진) 제이앤메디홀딩스 대표는 드라마와 K팝을 필두로 시작된 한류 열풍을 ‘K메디컬(성형)’에서도 일으키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그는 ‘뷰티크리에이터’다. 요즘은 유튜브로 성형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핫한 분야다. 틀이 짜 맞춰진 일반적인 의료 환경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을 풀기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럴 때 성형을 생각하는 이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한다. 주름 개선부터 ‘안면거상술’ ‘양악수술’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 보면 수많은 정보와 시술 및 수술 동영상이 뜬다. 갖가지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유튜브 속에 가득하다. 바로 정 대표가 하는 일이다.

한국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뷰티크리에이터’가 됐다.

이달 초 베트남 국영 방송인 VTV2의 간판 프로그램인 ‘체인지라이프’의 시즌5에 한국인 최초 공동 MC로 공식 발탁됐다. 베트남판 ‘렛미인’인 체인지라이프는 2015년 시즌1을 시작해 시즌마다 8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현지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한국으로 건너와 국내 최고 성형외과 원장에게 무료로 성형수술을 받게 되며, 외모 변화뿐 아니라 장학금과 채용 기회를 얻게 된다.

정 대표는 “프로그램 참가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참여하게 되다 보니 공동 MC 제의까지 받게 됐다”면서 “방송 진행까지 맡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처음부터 ‘뷰티크리에이터’를 꿈꾼 것은 아니다. 1998년 강남 성형외과에 첫 발을 내디딘 후 20년간 상담실장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그 뿌리이자 ‘뷰티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자산이 됐다.

그 과정에서 쓴잔을 마시기도 했다. 자신감 하나로 의료관광회사를 차렸지만, 보



기 좋게 실패했다. 그는 “사업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내 시각이 객관적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특정 병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의사와 병원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패란 쓴잔이 오히려 ‘뷰티크리에이터’로 다시 서는 악이 된 셈이다.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의사 아닌 ‘성형 전문가’로도 통한다.

지난해 문을 연 유튜브 채널 ‘정선미TV’는 2년여라는 짧은 기간에 적잖은 구독자를 확보한 인기 채널이다. 구독자 2만 4000여 명은 관련 채널 중 빠른 성장세다. 전체 영상의 누적 조회 수까지 따지면 그 수는 훨씬 많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유튜브 방송 활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콘셉트를 잡는 데 애를 먹었다”면서 “유튜브 활동을 접을까도 생각했지만 꾸준히 했고, 그 결과 유튜브 방송을 본 베트남 VTV 관계자가 먼저 방송 제작 등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해외 구독자들을 위해 방송에 영어와 일본어 자막도 넣고 있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목적이 성형 장려는 절대 아니다. 다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로 했다면, 이왕 잘하는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 대표는 베누시아파트너스 소속으로 ‘체인지라이프’에 전념하고 있다. 베누시아파트너스는 우리은행의 혁신성장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메르베스와 탁코리아가 공동으로 세운 법인으로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지사 설립을 마쳤다. 정 대표는 “체인지라이프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거래소 첫 여성임원 탄생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채현주

한국거래소가 연말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설립 이래 최초로 여성 임원이 탄생했다.



거래소는 18일 공석인 상무 3자리에 대한 인사를 통해 채현주(사진) 현 인사부장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상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63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집행간부로 발탁된 채 상무는 숙명여대 영문과를 나와 연세대 금융공학 석사를 받고 거래소에서 홍보부장 등을 거쳤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능력과 리더십이 뛰어난 부서장을 신임 집행간부로 임명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임 집행간부(본부장보)는 채 상무 외에 △김기경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송영훈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 등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두산중공업 COO에 정연인 사장

두산중공업은 정연인 관리부문장(부사장·사진)이 사장 승진과 함께 신임 COO(운영총괄)에 선임됐다고 18일 밝혔다.



1963년생인 정연인 신임 사장은 1987년 부산대학교 졸업 후 두산에 입사해 엔지니어 출신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국내외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정 사장은 종전에 맡고 있던 관리부문장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즈니스그룹(BG)을 총괄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인사를 통해 COO를 중심으로 사업 전반에서 균형적 경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사장은 2008년 두산중공업 EHS·생산지원 상무,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 운영혁신·생산총괄 전무, 2015년 두산중공업 베트남 생산법인장(전무), 2017년 두산중공업 보일러 BU장(전무), 올해 두산중공업 관리부문장(부사장)을 역임했다.

김기승 기자 kissong@

AI의 어이없는 실수…이세돌, 은퇴대국 1국서 불계승

이 9단, 2점 접바둑에 흑 잡아

NHN 한돌, 중반 잇단 황당수

예상승률 급락 92수 만에 기권

이세돌 9단이 국산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프로기사 은퇴 대국의 제1국을 승리로 장식했다. 한돌의 어이없는 실수가 승부를 갈렸다.

이세돌은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 기제1국에서 92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날 대국은 이세돌이 2점을 간 상태에서 덤 7집 반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NHN의 바둑 AI ‘한돌’은 중반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승부가 단명국으로 끝났다. 2점을 간 상태로 불리한 형국에서 시작한 한돌은 대국 초반 예상 승률이 10% 안팎에서 출발했으나 우연 흑돌을 공격하면서 3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세돌



18일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도곡타워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은퇴대국 제1국 모습을 기자회견장에서 화면으로 중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78수째 이후 한돌의 예상 승률은 14%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한돌은 잇따라 황당한 수를 내놓았고, 이세돌은 여유 있게 승리했다.

이날 대국에서도 ‘결정적 한 수’로 꼽힌 78수는 이세돌이 3년 전 일파고를 상대로 4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한 수다. 다만 이세돌

돌은 대국이 끝난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알파고 대국 당시 78수는 받으면 안 되는 수였다. 그러나 오늘 대국의 78수는 당연한 수였는데, 한돌이 예상하지 못한 게 아었다”고 말했다. 이세돌은 한돌과의 1국 승리로 19일 차리지는 2국에선 호선으로 정면 대결을 한다.

이재영 기자 ljiy0403@

루스 ◇상무 승진 ◇과근판 ◇김태형

◆신동아건설 <승진> ◇부사장 ◇개발 사업본부 우수영 ◇상무 ◇기획감사실장 김세준 ◇상무보 ◇분양마케팅 이성준 ◇건축·기전 김병수

◆파라다이스그룹 ◇전무 승진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박종훈 ◇주파라다이스카지노 부산 이상연 ◇상무 승진 ◇주파라다이스카지노 본사 오재록 ◇주파라다이스카지노 위커힐 양홍식 ◇상무보 승진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최지환 ◇주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그랜드 김동연 ◇주파라다이스호텔부산 여은주

부음

▲이정일 씨 별세, 이수섭(하이투자증권 경인지역본부장) 씨 부친상 = 18일 오전,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51-305-4000 ◇부산증권 ◆부산증권 ·(주)부산 ◇상무 승진 ◇고객사신운용 본부장 안효진 ◇준법감시인 겸 CCO 박현수

◆두산그룹 ·(주)두산 ◇상무 승진 ◇김민철 ◇박명석 ◇배정한 ◇신주훈 ·두산법률 ◇상무 승진 ◇그레고리 윈체스터 ·두산

▲김윤구 씨 별세, 김홍일(한화토탈 지원담당 상무) 씨 부친상 = 17일, 청주시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 2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대전 현충원, 043-298-9200

▲박재호(전 구미 대산외과 원장) 씨 별세, 박찬규(창원 박내과의원 원장)·정규(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미선 씨 부친상, 황아나(레뉴어빌더스 대표)·배은정(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씨 시부상 = 18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2072-2020

▲황순금 씨 별세, 백상호(전 스포츠을 광고본부장)·상영(남성농산 이사)·영자(녹동순복음교회 목사)·숙경(유치원 원장)·섭(일본 도쿄 임마누엘교회 목사) 씨 모친상, 심재남·박주원 씨 장모상 = 17일, 서울 성모병원 영안실 12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02-2258-5940

김현수 장관, 육군 1사단 방문

ASF 방역 장병 노고 감사 전해



김현수(사진 왼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8일 경기 파주의 육군 제1사단을 위문 방문,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장관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과 공동점이 많다”며 “우리 장병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농식품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역경제지원관 고기동

◆신용회복위원회 <신규보임> ◇지부장 ◇순천지부장 남정환 ◇강릉지부장 김상길 ◇포항지부장 배태호 <전보> ◇부장 ◇전략기획부장 이상우 ◇채무조정부장 차재호 ◇소액금융부장 김영신 ◇신용교육원장 박성우 ◇법률지원부장 임채동 ◇고객지원부장 박정희 ◇고객상담부장 이란희 ◇사이버상담부장 이상원 ◇감사실장 신우선 ◇팀장 ◇기획팀장 김상조 ◇조사연구팀장 김영복 ◇이행지원팀장 송성민 ◇지부장 ◇서울중앙지부장 민영안 ◇부산지부장 이시형 ◇대구지부장 정재성 ◇인천지부장 이병상 ◇광진지부장 신중호 ◇수원지부장 이선인 ◇대전지부장 오선근 ◇창원지부장 신재천 ◇안산지부장

박병현 ◇울산지부장 박영희 ◇노원지부장 장배현 ◇청주지부장 김민지 ◇안양지부장 김창건 ◇원주지부장 문지홍 ◇부천지부장 백상우 ◇구미지부장 윤용호 ◇미래에셋생명 ◇부문대표 선임 ◇GA영업부문대표 김평규 ◇본부장 전보 ◇FC지원본부장 김상래 ◇GA영업1본부장 한성숙 ◇마케팅전략본부장 김종흠 ◇본부장 선임 ◇PB영업본부장 변주열 ◇GA영업2본부장 이원석 ◇방카영업3본부장 김수진 ◇고객서비스본부장 치승렬 ◇실장 선임 ◇감사실장 조대호 ◇교보증권 ◇전무 승진 ◇국제금융본부장 신영군 ◇상무 승진 ◇고객사신운용본부장 안효진 ◇준법감시인 겸 CCO 박현수

◆두산그룹 ·(주)두산 ◇상무 승진 ◇김민철 ◇박명석 ◇배정한 ◇신주훈 ·두산법률 ◇상무 승진 ◇그레고리 윈체스터 ·두산

자본시장 속으로

김호준
대신자체구조연구소장

법규의 관할 부처가 다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기업들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상법은 '법무부'에서 관할하지만, 상장사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한 기업의 문제일지라도 '자체구조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관련 사항'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한다.

법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치열한 논의와 견증을 거쳐 수립된 인문사회과학의 한 분야다. 그런 만큼 법령들, 법 내의 다양한 조항들은 정교한 유기체처럼 상호 작용하며 가장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바라보는 법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관할 조직이 다를 뿐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 또한 얹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성규범(Soft Law)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과 관련된 사례들도 그랬다.

일반적으로 연성규범이란 국회 또는 정부기관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시행령(경성규법, Hard Law) 등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업계 내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제시하는 자치 규범이나 모범 규준과 같은 기준을 의미한다. 공적 규제 기관에 의한 방식이 아닌, 최대한 사적 자치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매우 선진적이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게 작용한다.

문제는 기존 법규와 연성규법 간에 그

취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자들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데 대한 자사의 운용철학을 원칙으로 제정, 공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다. 자율원칙인 만큼 코드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는 주로 기관투자자의 홈페이지상 게시를 통해 피아된다.

따라서 코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과의 소통에서 '공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코드 도입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주주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를 개별회사의 '주주총회 5일 전까지'에서 '주주총회 후 5일 이내'로 완화했으며, 급기야 2016년에는 매년 4월 말까지 '1년치를 모아 한꺼번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3차례에 걸쳐 공시 규정을 대폭 완화해 버렸다.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는 주총 활성화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개정의 취지는 공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실무상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개정 이후 과연 그 내용이 더 충실했는지, 업무 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문제는 법적 효력 면에서 코드와 같은 자율규범보다는 법률 및 시행

령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 연구소에서도 코드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시행령의 공시 규정을 원래대로 '주총 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관할 부처의 코드 담당 조직과 시행령 담당 조직의 업무가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또한 원활치 않은 데 있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주총 전에 안건의 찬반 입장이 공개되면 언론이나 일반 주주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고 소액주주들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주총을 넘기길 원하는 기업 입장과 배치된다는데 있었다. 다만, 2019년부터 국민연금이 일정 요건 하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미리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법규의 관할 부처가 다를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소통의 문제 외에도 각 부처 간의 우선순위와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상법은 '법무부'에서 관할하지만, 상장사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한 기업의 문제일지라도 정관,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감사, 기

업분할, 합병과 같은 '자체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에서 규율하지만, 밸류에이션과 같은 '재무 관련 사항'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외부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관련 사항'은 외부감사법에서 규율한다.

예컨대,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합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가? 문제 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을까? 개선 방안이 다른 규정들과 충돌되지는 않는가? 등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더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의원입법이 존재한다.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된 법 체계라는 이론적인 엄밀성에 관리 효율성이 더해지고, 나아가 자본시장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할 수 있을 때, 법이론과 자본시장의 현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성숙을 맞이할 것이다.

좀 느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원미숙의
참견

동의대 신소재공학부 초빙교수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로 인하여 정부가 기술자립화를 선언하고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늘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연구 풍토에서 일주일 만에 연구기획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급조된 기획팀이 작동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은 상황에 대비해 미리 연구기획을 해두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필자의 욕심이라면, 정부가 예산 지원을 약속한 시기부터라도 차근차근 연구팀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수는 없을까?

2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경우, 올해 화학상 수상자인 요시노 아기라(아세히카세이사 명예연구원)와 같이 기업 소속의 샐러리맨 연구자도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산·학·연 전반에 걸쳐 텐트하게 조성된 연구환경은 부러운 일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연구개발에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자가 소신을 가지고 평생을 자신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최근 아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포함시킨 '700·700·7' 사업은 40세 미만의 젊은 연구자 '700명'을 뽑아, 연평균 '700만 엔'에서 최대 1000만 엔까지, 7년에서 최장 10년간 지급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와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눈여겨 보아야 할 신진 연구자 활용 및 지원 정책이다(파이낸셜뉴스, 조은호 특파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에는 초등학교부터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학위 취득 후에도 정규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박사후 연구과정을 또 거치게 된다. 이렇듯 유년기, 청년

기의 대부분 시간을 공부에만 투자한다 해도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대학의 시간강사 등 고학력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정규 연구직이 되기 위하여 또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아직도 대학, 연구소 등에서 비전임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젊은 박사 과학기술인들은 "이럴 줄 알았다면 대학 졸업 후 진작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할 것을..." 하는 후회 섞인 푸념을 하곤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에 취업한 후에도 우리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늘 동분서주해야 한다. 긴 세월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준비해 온 신진 과학기술인들이 실제 연구현장에 힘들게 진입하더라도, 시류에 맞게 연구 테마를 변경하는 등 연구비 수주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연구 풍토를 이제는 좀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시점에서, 연구개발이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환경을 탈피하여야 한다.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희망인 젊은 연구자들이 꿈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공계 연구개발의 특성상 연구비와 인력이 없이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6개월 이상 연구를 쉬게 되면 첨단 연구 분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원천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느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체계적, 전략적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의 끈기와 정부 및 기업의 속도 조절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 에디트 피아프 명언

"목숨 걸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프랑스 국민가수. 상승의 여왕. 불행했던 어린 시절 곡예사 아버지를 따라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고, 훗날 세계적 상승 가수로 성장했다.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격정적인 그녀의 노래는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사랑의 기쁨과 상처가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15~1963.

☆ 고사성어 / 관견(管見)

붓 대롱 속으로 하늘을 보면 시야가 몹시 좁아짐. 학식이나 견문이 좁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말할 때 쓰는 말. 장자(莊子) 추수(秋水篇)에 나오는 이야기. 위모(魏牟)와 공손룡(公孫龍)의 문답 가운데 위모의 말. "헤아릴 수 없는 넓고 큰 경지에 잠겨 있어, 동쪽도 서쪽도 없이 현명(玄冥)에 비롯해서 대통(大通)에 이르러 있다. 그대는 하등대며 좁은 지혜로 이를 찾으려 하고, 서투른 구변으로 이를 밝히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붓 대롱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송곳을 가지고 땅을 가리키는 것이니 또한 작다 아니하겠는가."

☆ 시사상식/아인슈페너(Einspanner)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로,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 비엔나 커피라 불리던 이 커피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래했다.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의 일부들이 한 손에 고삐를 들고 한 손에 피곤을 풀기 위해 설탕과 생크림을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비롯됐다.

☆ 유머 / 개똥도 약

온몸에 문신한 것을 엄마에게 들킨 날, 슬리퍼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 이튿날 엄마 차 얻어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엄마가 옆자리에서 졸고 있는 아들을 황급히 훔들어 깨웠다.

"걸웃 얼른 벗어. 얼른!"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기영 자본시장1부/pgy@

돈과 도덕 사이

주식시장을 취재하다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모 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나 나올 법한 멋진 인생 역전 사례부터, '막장' 아침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삼류 도색소설에도 쓰지 못할 개인적인 비위도 더러 있다. 이런 이야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면, 증권 기자가 왜 개인의 비위까지 파고드나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좋게 돌려서 말하지만 한 마디로 줄이면 결국 '개인의 비위가 회사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다.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이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현직 경영진의 비위나 행태는 회사의 경영과 직결되고, 이에 따른 뒤처리는 현직 실무자의 뜻이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전가된다.

마침 금융감독원에서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기업 67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4개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확인된 횡령·배임, 주가 조작 등 위법행위 연루자 20여 명에 부당이득액은 1300억 원이다. 대략 최근 3년 새 벌어진 일이라

고 한다. 주목할 점은 금감원이 내놓은 분석이다. '과거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주가 조작 등의 사건은 재벌 비율이 무척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회사로 자금조달이 잦은 회사나 비상장 회사를 고가에 매입하는 회사 등을 지적했다.

개인적으로 이번 분석 결과가 무척 반갑다. 자금조달과 개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기업 가치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한 번 사고 친 인물만 잘 감시하고 감독해도 상당수의 사고를 막거나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아드라인'이 생겼다고 평가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이야기다. 실제로 과거 전력을 절대적 기준으로 들이대면 무척 얹을 사람도 몇 명 안다.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한다고 본다. 특히 자본시장의 성립 요건인 '신뢰' 역시 도덕 기준의 일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시장에 좀 더 엄격한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



소준석의
중국 경제인열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清 제국을 기울게 만든 권신이자 탐관

〈權臣〉

〈貪官〉

화신(和珅)은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건륭제(乾隆帝) 때 최고의 권신(權臣)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로 인해 나라의 운명은 기울었다.

화신은 만주족 출신으로서 어머니는 그가 3세 때 그의 동생을 낳다가 난산(難產)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가 9세 때 사망하였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간 뒤 23세 되던 해에 포목장고의 관리를 맡는 관리가 되었는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포목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 이 무렵 그는 뒷날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이재술(理財術)을 배울 수 있었다.

유능하고 청렴했던 젊은 시절

그 뒤 화신은 건륭제의 의장대 시위(侍衛)로 자리를 옮겼다. 어느 날 건륭제가 야외로 나가려고 시종관들에게 의장을 준비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마를 덮는 황룡산개(黃龍傘蓋)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자 화를 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황제가 크게 화를 내자 좌우 신하들이 모두 사색이 되었다. 이때 한 젊은 교위 하나가 나서며 말했다.

“담당자는 자신의 책임을 변명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는 논어 '계씨(季氏)' 편에 나오는 내용을 비유적으로 답한 것이었다. 건륭제는 학식이 깊고 풍류를 즐기던 황제였다. 건륭제는 내심 탐복을 하고는 그 젊은 교위를 불러 이름을 물었다. 바로 화신이었다. 외모도 준수했고 말솜씨 언사 또한 또렷또렷하였다. 건륭제는 다른 문제들도 물어보았는데 답변이 마치 물 흐르듯 유창하였다. 더구나 화신의 용모는 건륭제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연모했던 연귀비(年貴妃)와 너무 닮았었다. 그러니 화신은 본래부터 낭만적인 성격이었던 건륭제의 마음에 쏙 들었다.

화신이 처음부터 부정부패한 관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뇌물을 주어도 거절하는 청렴한 관리로 그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대학사 이시요(李侍堯)의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부정 재산을 몰래 착복하였다. 그런데 적발되기는커녕 거꾸로 그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공을 인정받아 황제로부터 상금과 함께 칭찬을 들었다. 그 뒤 큰 아들과 건륭제의 친딸 화효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자, 그의 권세는 이제 가히 하늘을 찌를 듯했다.

건륭제의 총애, 사돈까지 맷어

건륭제는 화신을 총애하여 그를 항상 옆에 있도록 하였다. 화신은 만주어와 중국어에 둘어들어와 티베트어 등 4개 언어에 능통했고, 사서삼경에도 정통했으며 '삼국지연의'며 '춘추'와 '홍루몽'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자 철학까지

독파하였다. 또 시인이기도 했던 건륭제와 더불어 시를 지을 수 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하루는 건륭제가 맹자를 읽을 때, 날이 어두워서 주(注)가 잘 보이지 않았다. 화신에게 등불을 가져다 비춰 보라고 했는데, 화신이 어느 구절이 냐고 묻더니 건륭의 대답을 듣고는 그 책의 모든 주를 외워서 말해 주었다. 황제가 강남(江南) 지방을 순행할 때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때마다 돈을 만드는 데 귀신인 화신의 능력이 특별히 발휘되어 경향 각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건륭제는 아무 어려움 없이 강남 순행을 달릴 수 있었다. 건륭에게 그만 한 신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나라의 모든 뇌물이 화신의 손으로

어쨌든 황제와 사돈이 된 화신은 그야 말로 최고의 권신이 되었다. 한립원 대학



청나라 건륭제의 총애를 받으며 당대 최고의 권신이었던 화신은 동시에 최강의 제국을 기울게 만든 최고의 탐관이었다.

사로서 그리고 군기대신으로서 조정 대권을 한 손에 거머쥔 화신은 특히 자신을 탐핵한 바 있었던 문관들을 증오하여, 많은 문관들이 명나라를 추종하여 청나라를 비방했다는 혐의가 쏙워진 채 '문자옥(文字獄)'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다.

이제 그는 공공연하게 재산을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뇌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드러내놓고 횡령하거나 백주 대낮에 빼앗기도 하였다. 지방 관리들의 상납품은 화신의 손을 거쳐 황제에게 올라갔는데 그는 그중 진귀한 것들을 가로챘다.

그는 전국의 모든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굽복하게 만들었고,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멸문시켰다. 절강성(浙江省)의 부호 증씨(曾氏)는 화신에게 뇌물 바치기를 거부했다가 집에 강도가 들이닥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고 전 재산이 강탈당했다. 겉으로는 강도를 당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모두 화신의 손에 들어갔다.

淸의 10년 세수보다 많았던 재산

화신은 18세기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같은 시대 독일의 저명한 금융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Mayer Amschel Rothschild)보다 재산이 더 많았다. 화신 스스로 대상인이기도 하였다. 수백 곳에 달하는 전당포와 오늘날의 은행 격인 은호(銀號)를 소유하였고, 영국의 동인도회사 및 청나라의 대외무역 독점 기관인 광동십삼행(廣東十三行)과 거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륭제는 자기가 신임하는 화신의 부정을 파헤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러한 화신이 두려워서 고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화신의 비위를 맞추느라 조정 안팎의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수탈해 온 진귀한 보물들을 앞을 다투어 그에게 갖다 바쳤다.

건륭제는 제위 60년 만에 태자 영염(永琰)에게 황제 자리를 양위했다. 바로 가경제(嘉慶帝)였다. 그러나 건륭은 비록 양위는 했지만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화신을 가경제와 자신의 중간에 앉아 있도록 하고서 섭정하였다. 이 무렵 노쇠한 건륭제의 말소리는 매우 작고 더듬거려서 오직 화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되니 모든 국정을 화신이 농단하게 되었고, 가경제는 그저 허수아비였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화신을 '이황제(二皇帝)'라 불렀다.

가경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마침내 건륭제가 세상을 떠나자 가경제는 즉시 20조향에 이르는 화신의 대죄를 선포하고 그의 집을 압수 수색하도록 명했다. 그의 집에서 백은 8억 냥을 압수했는데, 당시 청 왕조 1년 세수는 고작 7000만~8000만 냥에 지나지 않았다. 자그마치 청나라 조정의 10년 세 수입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화신의 재물은 모조리 국고로 옮겨졌다. 시중에서는 '화신이 거꾸러지니 가경(황제)의 배가 부르구나'라는 말이 널리 퍼졌다.

최강 제국의 붕괴 촉발사킨 부패

국법을 담당하는 정의(廷議)는 화신의 능지처참을 정했으나 화효 공주의 시아버지이고 선조(先朝)의 대신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자진(自盡)할 수 있도록 윤허되었었다. 마침내 흰 노끈이 보내지고 화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은 화효 공주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면죄되었다.

건륭제가 세상을 떠난 뒤, 강력했던 청나라는 급속하게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 붕괴에는 화신의 엄청난 부패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강의 제국을 기울게 만든 인물, 그는 바로 최고의 탐관(貪官) 화신이었다.

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경제효과 455조 원,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9개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AI 교육체계 수립과 디지털정부, 전 산업의 지능화 등 다양한 계획이 망라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021년), 데이터생산·유통·활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년)을 서두르고, 내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AI 연구개발 투자로 2029년까지 1조여 원을 들여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조 원 이상의 투자 펀드도 내년 중 조성한다. 특히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증설, 초중등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 확대 등으로 인재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추진을 통해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인 한국 AI 기술수준을 2030년 까지 95%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AI 붐은 세계적 현상이고, 이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시급성은 여전히 강조돼 왔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있어, AI 수준이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은 국가주도의 전략으로 경쟁구도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많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면 추격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저력을 활용해 AI의 핵심기술 선점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범(汎)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강조하면서, 기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위원회'로 재정립해 컨트롤타워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4차산업 혁명위원회는 지난 2년간 정책 집행력을 갖지 못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보이면서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다. 정부 부처들의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부처 간 정책 혼선 조율과 해소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상 제고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규제개혁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펀테크, 드론 등 4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막혀 있다.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법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 100세

‘눈 중풍’ 망막혈관폐쇄증

“주사 맞고 많이 좋아졌어요.” 진료실에 들어오는 김일환(65·가명) 씨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한 달 전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증상으로 내원해 망막분지정맥폐쇄증으로 진단받았던 환자다. 고혈압이 있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치료 없이 지난 지 10년, 평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담배로 풀며 지내왔다고 한다. 망막분지정맥폐쇄증이라는 길고 생소한 병명에 고개를 갸웃하던 김 씨는 눈에 오는 중풍이라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혈압이 높아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내과에 의뢰해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 뒤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 망막분지정맥폐쇄증에 흔히 동반되는 심한 황반부종으로 밝혀져 당일 유리체강 내 항체주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내원한 것이다.

머리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둔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일 때 풍 또는 중풍이라고 한다. 우리 눈 속에 있는 망막이라는 기관은 뇌와 구조가

비슷해서 혈관과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망막 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게 되면 갑자기 시야의 전체 혹은 일부가 어두워지는데 이것을 쉽게 ‘눈 중풍’이라고 한다.

막힌 혈관이 동맥인지, 정맥인지, 막힌 위치가 시신경 속인지 망막에서 갈라진 후인지에 따라 명칭도 달라지고 예후나 치료법도 달라진다. 하지만 일단 혈관이 막히고 나면 뚫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막은 한 번 손상을 받으면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운 조직이라 그든 작든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다. 혈관 폐쇄성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면 내과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심해야 할 생활습관으로는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단수화물과 동물성 기름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수진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안과전문의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이 숨결 하나에
먼지 한 틸 섞이지 않기를
이 예린 피부에
조금의 더러움도 닿지 않기를

100% 순면

무형광 원단
아기옷 전용 세제
아기옷 전용 유연제

소중한 아기옷에
아무 건조기나 쓸 순 없으니까

더 건강한 삶을 위해
건조기는 그 무엇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건조기 쿨덴서 Q**를 확인해보세요

“그렇데이의 양방향 도어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설치, 사용하세요.”



자연의 좋은 건조
삼성 건조기 그랑데